

광서팔년

예수성교

요한네복음전서

심문광서원간

진니르씨우리사이에거하여우리의영화를분기시야밤이

이로말르야만

고

이로말르야만

스나이스

Bible
Corean
1882

Gospel of John in
Corean, Tr. by J. Ross,
[Mukden 1882?]

요안네테일장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하나님 파항게하니도는곳하나님 이라
이도가처음에하나님파항게하미만물이말므야마다지어스니지은
빈는하나토말무지안꼬지으며업논이라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
이사람에빛치되어여빛치어두유티빛치우되어두유티는아지못하터
라한사람이이스니하나님이보닌비일흔은요안니라와셔간증이되
문빛출위하여간증하여웃사람이제로말므야마밋게하나제가빛치
안이요오직빛출위하여간증하엿나니라그는진광이니세양의온샤
를빛치우나니라그세양에이셔세양이말므야마지은거신데세양이
아지못하꼬자귀게일으리시되자귀사람이빛지안으니물웃보는샤
논곳일흔을밋으미라권세를주워하나님의아말을삼아시니이눈혈
땋으로말몸도안이요육신으로말몸도안기요사람의뜻으로말몸도
안이요오직하나님으로말므야마난샤라되기도가육신을일너너너
기은총파진니로써우리사이에거하여우리그영화를본거시아밤이

나은외아달의영화갓다니라요안너간증하여볼너갈오되이곳너말
한비자니너뒤여와셔너암페이스문나보담만져흐미니그너너흐무
로우리다바다곳은총에은총을더흐미니놀법은위세로말므야마주
고온총파진니는예수기리스토로말무냐니라자교로사람이하나
님 을몬이가업스되오식아밤의꿈에잇는외아달이표명흐나니라
요안너의간증이이갓튼거시라유대인이예루사렘게너제사와니위
의일가를보낼새여들어올오되너는귀라흐나냐요안너알고귀이지
안코골오되나논기리스토 안이라또볼오되너는귀냐이니어나갈
오되간이라그션지냐갈오되간이라그런즉너는귀냐우리를보닌자
의게회보오게네스사로우어시라일으라흐니더답하여갈오되나는
이들어에서불운자의소리니주의브을성식게하라한자니션지이사
야의말한갓다흐다라보너를맞든자는마리신이라또들어갈오
되네가기리스토고안기요이니아도안이요그션지노안이라흐면엇
지밤팀네를버푸나냐요안너더답하여갈오되나는늘노써밤팀네를

버꾸되오직너의가운데아지못하는자너뒤에와셔도지의신들민를
너감이꾸지못홀쟈가섯나니라이일운거시올단밧전비다니에셔요
안니밧팀네버꾸논곳이라이튼날요안니예수 자괴게나아오물보
고갈오디하나님의 양식기세상에죄진쟈를보라이는나말한바너
뒤에온사람이니너압괘이스문그나를만져호미라너아지못하고오
문물노써밧팀네를버꾸러지를이실일의게낫타나게호미라요안니
셔간증호여갈오디너성신이셔들기갓치하날노너럭그우게머즈물
보표너아지못호여시되오직나를보너여물노써밧팀네를버꾸게호
논어가너게표호여갈오디네성신이너럭그우에머즈물보리라곳성
신으로밧팀네를버꾸다호는표로너보표이하나님의 아달되물간
증호노라호다라이튼날요안니다시두테자와할게셔서예수 히호
를보표갈오디하나님의 양식기를보라호니두테자그말을듯표제
수를 좃츠니예수 도라그좃츠물보표갈오디네무어슬찾나냐디
답호여갈오디랍비라호니시긴즉스성이라어지사나니잇가갈오디

오나보리라 지이여가그사는비를보표이날에함께사니씩가신시라
요안네를듯표예수를 좃는두사람에한나은시몬피들의동성안드
략테라데만저그동성시몬을만나여갈오디우리미시아를맛나였다
하니신긴즉키리스토라 인도하여예수의게 가니예수 보고갈
오디너는요나의아달시몬이라기과라일거를지니신긴즉피들이라
이튼날예수 가니너에가고자하다가비닐을만나여갈오디나를좃
츠리하니비닐은비시디사람이니안드라파피들파한표올이라비닐
이나단의의를만나여갈오디모쇼가법에서선지파말한비사랑을우리
만나나나살일요섭의아달예수라 하니나단의가갈오디나살일의
능이선한거시나나나비닐이갈오디와보라하니예수 나단의가일
으볼보표갈오디갈오디보라진이살일사랑게출업손자라하니나단
이가표오디엇지나를아나니잇가예수 디답하여갈오디비닐이너
를볼으기전에무화과나무아래서너를보왔노라하니나단의가디
답하여갈오디스성님은하나님의 아들이요이살일의왕이라예수

갈오디너너를무화과나무아래서보왔노라호물위호여곳및나냐장
차이에셔크물보리라호고또갈오디너실노너오게고호나니장차하
날이열너하나님의 사자가인자우에올우며너리물보리라

요안너테이장

삼일만에가니너의가나에호연이이스미예수 오맘이참에호고예
수 제자로너부러또한청호물보고듯게나아가니술이다호였는데
예수 어맘이일너갈오디저의술이엎다호니예수 일오디부인은
나파무삼쌍판이요너씨가일으지못호였나이다호니그어맘이종다
러갈오디저너오게말한바를헿호라호다라거괴석항여으시이스니
유디사람의정결한법인데각각한말가량드느니라예수 갈오디물
노써독을치우라이여치우니거의넘지게된지라갈오디즉시파방의
게로퍼보니라호미이여가저가니파방이물이변호여술이된거슬맛
보니어디로운줄늘아지못호되오직물가저간종이아느니라파방이
신냥을불고갈오디물운사람이만저조흔술노써나외고직이취호미

나 존술을 나외는데 너는 존술을 직기여 이제 새지일으러다 하더라
이 예수 첫징조를 가니 나가나에서 히히여 그 영화를 낫타니 이니 제
자 곳 밧다 라 그 후에 예수 그 어맘과 동심과 제자로 더부러 함게 가 밧
남에 일으리거 한지 오리지 못히 여 유디 사람의 넘년절이 갓가 운지라
예수 예루사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들기 과는 자와 밧돈
밧구는 자안저 스물보고 예수 노으로써 첫직을 만그러사 람과 우양
을 다 성전에 너 싹고 또 돈 밧구는 자의 돈을 기우리치고 그 조사를 새구
리치며 비들기 과는 자게 갈오디 이물건을 가져가고 나의 아밤의 집으
로 써 무역하는 집들만 그지 말나 귀룩한 바에 너의 집을 위히여 마음싸
나를 삼킬트시히리라 하물 제자가 싹각하니 유디인이 갈오디네이를
히히니 곳 무삼 징조로 써우리게 보이갓나냐 하니 예수 디답히여 갈
오디네이 성전을 열면나 곳삼일에 서우리라 유디인이 갈오디이 성전
을 사슴육년에 지엿는데네삼일에 서우갓나냐 다 못예수의 말한바
는 그 몸 성전을 갈아쳐 죽우무로 일어난새여 제자그이말이 스물 싹각

하고 곳경에 쓴 바와 예수 의 말 늘 밋다 라 예루사렘에 서 넘논 절연 석
에 이 살 새 여 수 다 한 사 람 이 행 한 바 징 조 를 보 고 그 일 흠 을 밋 으 나 다 못
게 수 밋 지 안 이 흥 문 모 든 사 람 을 알 미 오 사 람 간 증 홀 자 를 쓰 지 안 이
흥 문 스 사 로 사 람 의 속 을 알 미 다 라

요안 너 테 삼 장

바 리 식 인 이 이 사 도 일 흠 은 니 꼬 디 무 니 유 디 사 람 의 직 상 이 라 밤 에
예 수 의 게 나 아 가 곁 오 디 셴 성 님 우 리 셴 성 을 하 나 님 으 로 온 스 승 인
줄 아 는 가 시 하 나 님 이 힘 쇠 안 이 흥 여 시 먼 이 행 한 바 징 조 를 능 히 행
흥 지 못 흥 리 라 흥 니 예 수 님 님 흥 여 곁 오 디 님 실 노 네 게 빌 오 나 니 사
람 이 다 시 나 지 안 이 흥 면 하 나 님 의 나 라 을 능 히 보 지 못 흥 나 니 라 니
꼬 디 무 빌 오 디 사 람 이 늘 그 밋 었 지 나 며 능 히 두 번 어 맘 의 비 예 들 어 가
나 리 오 예 수 곁 오 디 님 빌 노 네 게 빌 오 나 니 사 람 이 클 파 링 으 로 가
안 이 권 능 히 하 나 님 의 나 라 게 드 지 못 흥 나 니 육 신 으 로 는 사 람 의 육 신
이 오 링 으 로 는 자 는 링 이 니 니 널 파 말 흥 되 맛 당 이 다 시 가 겿 다 흥 폴 과

이히비기 지물니바투이임의로불민네그소리는듯피어디우오너어
뒤로기논술아지우하니니링으로논지이갓타니카니카리무말오
뒤엇지능히러일이나니잇가 예수대담하엿과오디네살일
의스승으로우히린이일을아지못하나나닌실노네게보오나니나아
는바말오오본바를간승호노라네너의간증을빛지안고세상어일
말오오도비밋지인이하니하날에일을말호면네엇지잇으랴하날
을간자업사뒤오직하날노니린자나구하날에이논인자과모소가들
게너비암듬치인사도또한반다시들니우물부리니무릇밋는자
터로닐밋암아영심이이사리다 하나님이세상을이갓치사랑호피그
외아말을주어무릇밋는자논망호를면호고영심이이사문하나님이
그아말을세상게보너겨세상으로시주미안이오세상이터로닐기
아구완게하니니밋는자논죄를주지안고밋지안는자논이무죄를주
어시문고하나님의외아말일흠늘밋지안미라이죄주미밋지세상
에온거신뒤세상인이빛보달어두우물사랑호문고일이악하미라무

뜻악을 너키는 자는 빛출미워하여 빛체나 아오지 안은 문그일이 발가
질 가져어 호미 오오직 참되물 호는 자 빛체나 아오 문그일을 발겨 하
나 남으로 말미암아 호 호미라 그 후에 예스터 자로 터부러 유더 싸에
닐으리 함씩 거하여 밤 틱테를 베 푸니 요안너의 노에 셔 사 남이 갓가 오
네 또한 밤 틱테를 베 푸 문 그 곳에 물이 만으 미라 사람이 닐으리 밤 틱테
를 밧으 니 요안너 사 로 옥에 너 리 미 업는 지 라 요안너 의 터 자 한 유 더 인
으 로 터 부 러 정 결 호 물 의 논 호 여 요안너 의 깨 나 아 가 갈 오 더 스승 남 터
스승 파 함 식 올 단 밧 게 이 서 시 나 곳 스승 이 간 증 한 바 짜 가 밤 틱 테 를 베
푸 레 못 사 람 이 나 아 가 나 이 다 호 니 요안너 더 담 호 여 팔 오 더 하 날 노 주
지 안 아 시 면 사 람 이 능 히 무 어 슬 밧 지 못 호 여 서 리 니 너 의 스 사 로 나 를
간 증 호 여 셔 너 말 호 기 를 너 키 리 스토 안 이 오 오 직 그 압 께 보 너 물 바
든 자 라 호 니 신 부 잇는 자는 신 냥 이 니 신 냥 의 벗 이 셔 서 신 냥 의 소 리 를
듯 고 즐 거 워 호 미 심 호 니 고 로 나 의 즐 거 워 호 미 가 득 호 엿 노 라 터 는 반
다 시 성 호 고 나 는 쇠 호 리 니 우 흐 로 온 자는 만 물 의 우 에 잇 고 싸 으 로 는

싸에부터시니그말호는바도또한싸에부터시되오직하날노부터온
쟈는만물우의잇나니라본바와들은바를간증호되간증을밧는사람
이업사니그간증을밧는쟈는 하나님으로찬되물삼나니 하나님
이보닌바쟈는 하나님의말을말호문 하나님이성신으로주미한
량업사미라아밤이아말을사랑이여만물노써그손에부탁호니아말
밧는쟈는영성이잇고아말을밧지안는쟈는식명을보지못호나니오
직 하나님노호미그우에잇나니라

요안닌테사장

주바리쉬인이자그터자를물우며밤팀레히호미요안닌의밤팀레보
담만담들으올아되다못 예수스사로밤팀레베푸미안이오오직터
자가베푸미라유디를셔나다시가니네에나아가니사마랴를지너는
지라사마랴한성에닐으는디일홈은시칼이니야곱이그아말요섭을
준바밧치갓가온지라거기야곱의우물이이사니 예수길을행호무
로필곤호여우물우에안자니셔가나지라사마랴부인이와물을깃거

날 예수닐 오디나를 마시게 하라 하니 성역터 자성에 들어가 먹울거
살실사 마라 부인이 날 오디 너는 유디 인위 데 엿지 마시물 너 사 마라
부인 오기 구 하는 야 하 문 유 디 인 이 사 마라 사람으로 터 부러 왕 너 치안
으미라 예수 디 답 하 여 같 오 디 네 하나 남의 준 것 파 밋 너 로 터 부러
마시물 청한 자 된 줄 노 알 면 반 다 시 터 의 게 구 하 라 테 는 곳 산 를 노 써 너
를 줄 이 라 부 인 이 날 오 디 녕 감 이 물 들 클 으 시 업 고 또 우 물 이 김 푸 니 구
어 스로 날 디 암 아 산 놀 이 이 스라 녕 감 이 너 의 조 상 야 곱 이 우리 를 이 우
돌 을 주 어 자 기 피 아 달 파 가 툅 으 로 다 마 시 게 하 나 보 닥 크 나 하니 예
수 디 답 하 여 같 오 디 무 릫 이 돌 마 신 자 는 다 시 같 하 고 오 직 나 기 주 바 물
을 마 신 자 는 긴 닻 같 치 안 으 문 너 줄 바 물 은 근 원 늘 일 너 나 솟 구 버 영 성
에 들 안 다 하니 부 인 이 날 오 디 청 견 디 기 물 을 나 를 주 어 나 를 팔 치 간 게
하 며 또 여 기 와 물 깃 지 안 게 하 소 셔 예수 닻 오 디 가 네 지 아 비 를 불 우
고 여 기 고 라 부 인 이 디 답 하 버 날 오 디 너 지 아 비 업 수 기 다 케 노 말 오
디 네 지 아 비 업 다 팔 하 미 을 토 나 네 다 샅 시 가 키 가 이 나 시 리 지 금 잇 는

짜자는 자아비안이니 바말이 실노 온타 부인 이 날 오디 녁 감 넘 니 보니
곳 선 지 다 노 조 상 이 이 선 에 서 절 호 엿 는 디 오 직 선 성 네 논 맛 당 이 절 할
곳 이 여 투 시 렘 이 리 호 니 여 수 님 오 디 부 인 아 네 나 를 밋 으 라 쎄 블 아
리 니 아 바 니 제 절 호 미 이 산 에 노 잇 지 인 고 예 루 시 렘 에 도 잇 지 안 이 호
니 디 의 논 실 호 는 마 들 아 지 쎄 호 노 우리 논 실 호 는 바 들 아 너 니 구 완 호
미 유 디 캄 으로 붓 터 잇 나 너 리 쎄 가 블 아 리 니 이 제 로 다 참 으 로 절 호
논 사 는 녁 파 신 디 로 쎄 아 바 니 제 절 호 문 아 바 니 가 이 갓 치 절 호 고 쎄 호
미 다 하나 님 으 려 이 니 절 호 는 샤 가 령 파 진 리 로 절 호 미 맛 낭 호 니 라
호 니 부 인 블 오 디 너 미 시 아 기 리 스토 라 칭 호 는 자 장 차 블 올 줄 을
아 니 터 글 아 면 반 다 시 다 우리 제 고 호 리 라 예 수 님 오 디 널 노 더 부 리
말 호 는 사 님 가 곳 기 로 다 쎄 호 터 자 와 쎄 그 부 인 으 르 더 부 리 말 호 물 고
이 히 네 기 나 클 어 나 주 무 어 슬 구 호 나 노 엿 지 부 인 으 르 더 부 리 말 호
나 노 쎄 는 사 람 이 업 다 라 부 인 이 그 동 계 를 쎄 나 성 계 들 어 가 사 람 의 제
닐 디 갈 오 디 와 한 사 람 이 니 행 한 바 로 쎄 다 너 제 말 호 는 자 를 보 라 이

키리스토안이냐 뜻 사람이 성으로 나가 예수에게 나아가는디 너 자
청하여 볼오디 선성님 잠수 소셔 갓 오디 나 눈 억을 거 시 이사 나 너 의 아
지 못 할 바라 하니 너 자서로 볼오디 사람이 공급 하였나냐 예수 볼오
디 나의 억을 거 손 나 를 보 너 니 의 뜻을 행 하며 그 일을 일우 는 거 시 라 너
의 사 로 너 잘 볼 잇 다 가 거 들 세 볼 으 려 다 볼 오 지 갓 난 야 보 라 너 너 외 게
말 하니 눈 들 들어 밧 들 보 라 이 무 회 여 거 두 가 시 니 거 들 자 가 싹 슬 바
다 곡 석 을 싸 아 영 성 에 볼 으 리 시 문 자 와 거 들 자 가 함 쇠 즐 겁 게 하니
이 는 속 담 이 터 는 시 무 며 이 는 거 든 다 함 미 올 은 지 라 너 너 를 보 너 여 잇
부 지 안 은 바 를 거 두 니 말 은 사 람 이 잇 부 고 너 의 가 그 잇 부 물 니 으 미 라
하 다 라 거 귀 잇 는 사 마 라 사 람 이 만 이 미 드 문 부 인 이 간 증 한 바 말 이 나
의 행 한 바 를 터 다 너 게 말 한 다 함 미 라 고 르 사 마 라 사 람 이 나 아 와 함 쇠
뉴 향 을 구 하니 이 여 거 귀 뉴 한 지 잇 들 에 그 도 로 말 미 암 아 밋 는 자 터 만
아 부 인 게 볼 오 디 이 제 우 리 밋 는 거 산 비 말 을 위 함 미 안 이 오 친 이 뜻 고
실 노 세 상 을 구 완 호 는 자 로 아 노 라 그 이 들 을 지 너 여 거 귀 를 써 나 가 니

너로가문스사로간증되션지가본토에셔공경을보지못한다함미
라가니너에블을씨여가니너사람이영접호문일즉예루사렘에셔절
귀에항한비를다보고터덜이또한절귀에나아가미라다시가니너의
가나에블으니물노써슬핀지던차이라한귀인이이서그아뜰이가빌
남에셔병호는디 예수유되로붓터가니너에블으물듯고나아가그
아뜰차치레너려오물구호문아뜰이거의죽어지출인호미라 예수
갈오되징조와이상호물보지안아시면나의밋지안오리라호니귀인
이블오되 주나의아뜰속기전에청견된너려가사이다호니 예수
블오되항하라네아뜰이살았다호미 예수의말호는바를밋고항호
는디갈씨여그종덜을만너니블오되주인님의아뜰이살았나이다그
어느씨여빌으소나앗난야를우니갈오되어제미시여열병이씨나갓
나이다아밤이곳 예수너의아뜰살았다말호던선술을아다라이여
터와고흔가이다밋다라 예수유되로붓터가니너에블으럭그징조
항한바이두번치다라

요안너 데 오장

그 후에 유디 사람의 절기에 예수여 루사렘에 올라 가니 예루사렘에서
양문이 갓 가운데 한 못시이스니 흠린 방언으로 베틀스다라 못세다 듯
항냥이 이스되 안에 병든 자와 쇠경과 저는 자와 피란 자 누운 거시 만은
데 거괴 사람이 이서 병호는 지 삼습 팔년이라 예수 그 누어 시물 보고 이
갓치 올인 줄 알고 볼 오디 배 낫고 자 호 나 나 병인이 디 답 호 여 갈 오 디
쥬 불 동 흘 셔 여 나 를 붓 쓰 러 못 세 니 릴 사 람 이 업 서 니 갈 셔 여 말 은 사 람
이 나 보 담 만 저 너 리 나 이 다 예수 볼 오 디 볼 어 배 상 을 가 지 고 가 라 호
니 그 사 람 이 곳 나 으 미 상 을 가 지 고 가 니 이 날 은 사 밧 일 이 라 고 로 유 디
사 람 이 나 은 자 게 볼 오 디 이 사 밧 일 이 니 배 상 을 지 미 맛 당 치 안 타 호 니
디 답 호 여 갈 오 디 나 를 낫 게 한 자 명 호 여 상 을 가 지 고 가 라 호 다 라 터 물
어 갈 오 디 너 를 명 호 여 가 지 고 가 라 한 자 는 뉘 노 나 은 자 닐 줄 가 지 못 호
문 그 곳 게 사 람 이 만 귀 예수 셔 나 를 인 호 미 라 후 게 예수 성 년 게 서
만 나 여 갈 오 디 보 라 네 나 야 시 니 다 시 는 죄 에 범 치 마 라 저 푸 건 딴 후 환

이더옥심홀가호노라그사람이나아가우디인게고호기를낫게한자
가 예수라호니고로유디인이 예수튼군박호문그일을사밧일에
헿호미라 예수갈오디너아반이이제새지일을헿호고너또한일을
호노다호니고로유디인이더숙이고자호문그사밧일을폐호문거니
와또닐으기를 하나님을그아밤이라호고자괴가 하나님으로가
죽호다호미라고로 예수갈오디너실노네게닐어나니아말이아밤
에헿한바를본외예자괴로능히헿호지못한다호문아밤이헿한바자
를아말이또한갓치헿호미라아밤이아말을도와호여자괴헿한바로
써다보이고또장차이일보담그무로써보이미너의괴기타호리라아
밤이죽은자를블게합파살게할갓다문아말이또한이갓치임의로살
게호미라또아밤이아무사람도판죄치안이호고판죄로써다아말으
게맞치미못사람이아말을공경호기를아밤공경합갓치호라호니아
말을공경치안는자논보닌아밤을공경치안오미라너실노네게닐으
나니너말을듯고나를보닌이를밋는자논영성이잇고판죄호는테닐

오지안 죄속으 무로나와 심명으로 들어 가는이라 너 실노네게 붙으나
니 새장차 붙을지니 이제로다 죽은자 하나 남아말의 소리를 들을지
니 들은자 논반다 시사나 니라 아밤이 자기게 심명이 이스미 또 아말을
준 심명이 자기게 이슴갓고 또 권세를 주어 써 판죄를 희게 하문 그인
자 되물어 하미니 일노 써 괴기 타 말나 새장차 붙으니 무덤안에 잇는자
그 소리를 듣고나 올여 하연을 행한자는 심명이 다시니는 데 붙으고
악을 닦진자는 죄 주어 다시니는 데 붙으나 니는 능히 자기로 행한바 안
이 오늘날은 바갓치 판죄 하니 나의 판죄 하미 공변된 문너 자기 뜻을 구하
미안 이오나 틀모닌이의 뜻을 구하미라 너가 만일 자기를 위하연 간증
하면 나의 간증이 참이안으로 되말은 이가 나를 간증하나 니가 이간
증이 나를 간증한바 참된 줄아 노가 너의 사람을 요안너에게 보너 미
터 신니를 간증하연 시나 그리나 너가 간증은 사람을 깨닫지안나 니다
못이를 빌너 너의로 구완게 하미가 터는 혀 빛치운 등인테 너의 잠간그
빛츠도 희락 하연 시나 다 못이 잇는바 간증이 요안너의 간증보담크문

아바나나를주어쓰일을일우게함이니곳너가행하바일이나를위함
여아바나나보너늘간증함미오또나를보너아바나또한나를간증함
나너의그솔이도듯지못함엇고그모양도보지못함엇고그도가너
의속에뉴함미업스문그보너바를밋지안으미라너의논성경을구삭
함문그가운데너의영성이스물싱각함미라이논또한나를간증함되
너의즐거너게나아와쓰심을엇지안이함니너영화를사람에게밋
지안으나그러나너의속에 하나님의사랑업스물아나니너나의
아밤의일함으로써와시되너의나를밋지안이함니만일말은사람이
자기일함으로써오면너의밋으리라너의서로영화를밋으되하나뿐
하나님에게오노는영화를구치안논자엇지능히밋으랴너를아
밤에게송사할솔노뜻하지말나너를송사함논자이스니너의바리는
바모쇼라만일도쇼를밋으면반다시나를밋으문그나를같이쳐쓰미
니만일그글을밋지안으면엇지너의말을밋으랴

요안나데복장

그 후에 예수 가 나 님 바다 을 건너 니 곳 디 비랴 바다 이 라 여 러 사 람 이
좃 츠 문 그 힝 하 바 병 든 자 의 게 징 조 보 미 라 예수 산 에 올 나 터 자 루 함
쇠 안 즈 니 쇠 여 념 느 설 이 갓 가 무 니 유 디 인 의 큰 절 괴 라 예수 눈 을 틀
어 여 러 사 람 이 나 아 오 물 보 고 비 념 의 게 보 오 디 오 리 어 디 쇠 석 을 사 이
사 람 을 메 길 이 오 이 렷 듯 날 으 문 터 를 시 험 호 되 스 서 로 장 차 힝 홀 바 를
알 미 리 비 념 이 디 많 호 되 은 이 습 냥 에 치 석 으 로 족 금 식 바 다 도 자 리 지
못 호 갓 나 호 니 터 자 의 한 나 온 시 몬 피 들 이 동 식 위 드 라 보 오 디 여 귀
한 아 희 불 이 썩 다 슯 키 와 고 기 두 리 가 이 스 나 이 갓 든 여 러 사 람 에 일 노
써 두 엿 호 리 잇 가 예수 괄 오 디 사 람 을 다 안 지 오 라 그 곳 에 풀 이 성 한
데 사 람 이 다 인 즈 니 수 가 오 천 이 라 예수 석 을 가 저 축 슈 호 고 안 존 자
덜 을 논 아 주 고 고 기 도 그 러 호 여 호 고 자 호 는 바 로 맛 치 니 못 사 람 이 비
불 운 지 라 예 슥 사 터 레 크 오 디 그 나 문 부 수 리 기 를 거 두 워 바 키 지
말 나 호 니 이 버 거 두 워 광 지 열 들 에 치 오 니 곳 다 슯 키 불 이 썩 부 수 리 긴
데 먹 고 나 문 바 라 사 람 이 예수 의 힝 하 바 징 조 를 보 고 보 오 디 이 실 노

세상에 온바션지라 예수사람이 잣차와 강잉하 여왕삼을 즐노알고
호늘노다 시산에 가니 저물기여 밋춘지라 그터사 니려히 변여 놀으리
빈에올나 바다을 건네가 빌남에 가려하는데 어둡도록 예수사로오
지인아셔물결이더흐문바람이 밀닐흐미라터자빈를저어습니나가
다가 예수바다을 발바빈에갓가우물보고곳무셔워하니 예수닐
오디이너로다 무셔워말나터자즐거마자빈여올으니잠시여빈갈곳
에닐으다라이튼날못사람이바다터견두던에서서빈한나외게는말
은빈는업스데소 예수그터자로터부러빈에올으지안꼬오직테자
만나아가물보왔는지라그러나멧비가더비랴도오니 주축슈하교
못사람을씩주워먹이던곳이갓가운지라못사람이 예수와테자다
잇지안으물보고빈에올나가빌남에놀으리 예수를찾다가바다터
견에서만기여갈오디녕감남어니셔여놀으러는잇가 예수디답호
여갈오디너실노너의게놀어나니나를차즈문징조보미안이오이씩
먹고빈볼으미라망흐냥식을위하여입버말고영형의냥식뉴하물위

하라 곳인 자 너의게 줄 바자 니 아반이 하나님이 티게 인 티미라 같 오
뒤 우리 맛당이 엇지 향야 씨 하나님의 일을 알 히 리 잇가 예수 뒤 담
향여 같 오 뒤 그 보 님 바 자 를 밋 으 면 곳 하나님의 일을 향미 라 향 니 같
오 뒤 녕 감 금 무 순 징 조 를 향 향 여 씨 우리 를 보 야 밋 게 향 며 무 순 일 을 향
향 갓 는 잇 가 우리 조 상 이 들 게 씨 마 나 를 먹 은 거 시 성 경 에 들 은 바 갓 치
티 하 날 노 말 미 암 아 석 을 주 워 메 께 다 향 니 예수 같 오 뒤 너 실 노 너
의 게 날 으 나 니 하 날 노 말 문 석 으 로 너 의 를 준 자 는 모 쇼 가 안 이 오 오 직
너 의 아 밤 이 하 날 노 말 문 석 으 로 씨 너 의 를 주 나 니 하나님의 석 은 하
날 노 너 린 바 성 명 을 세 상 에 주 미 라 향 니 같 오 뒤 주이 석 으 로 씨 늘 우
리 를 주 소 씨 예수 같 오 뒤 나 는 성 명 의 석 이 니 너 게 나 아 오 는 자 는 주
리 지 안 이 향 고 나 를 밋 는 자 는 긴 너 같 치 안 나 니 그 러 나 너 의 게 말 향
되 너 의 눈 나 를 보 고 오 이 리 밋 지 안 으 나 아 밤 이 나 를 준 바 자 는 반 다 시
다 너 게 나 아 오 나 니 나 아 오 는 자 는 너 가 죽 지 안 이 향 문 너 가 하 날 노 너
리 미 자 기 쯏 을 향 향 미 안 이 오 이 나 를 보 님 이 쯏 을 향 향 미 라 나 를 보 님

이 뜻은 그나를 준바자를 닐망치안코마즈막날에다다시볼게호나니
너아반○뜻은아를볼보고밧는자는다영성이잇고너가마즈막날에
다시볼게호나니라호니유대인이그스사로하날노너린척이라말호
물듯고응얼결여닐오디이요섬의아를 예수그부모를우리가아는
바인이냐엇지호여이제하날노너렛다볼으나호니 예수광오디
서로응얼결이지말나나를보닌아반이가잇글지안으면능히너게나
아오는자업살지니또너가마즈막날에다시볼니라선지쿨에닐너시
되터다 하나님의갈으치를입엇다호니표로아밤을듯고비우는자
논다너게나아오나니사람이아밤을보왔다호미안이되오직 하
나님으로말둔자야아밤을보왔나니라너실노너의게볼으나니밧는
자는영성이이슬거시나는영명의척이라너의조상이들게여마나를
먹고속어시되이하날노너린척은사람이먹고죽지안나니카나는하
날노너린산척이니이척을먹는자는길이사나니라너장차출바척은
나의고기니세상의성명을위하여준거시라유대인이서로맛토와닐

오디이사람이엇지능히그고기로써우리를주어메기랴 예수갈오
디너실노베게벌으나나인자의고기를먹지안으며그피를마시지안
은즉싱명이너의속에업고너피를먹고너피를마신쟈는영성이잇
고너장차마즈막날에다시볼게호리라너고기는실노먹을거시오너
피는실노마실거시오너고기를먹고너피를마신쟈는너게뉴호고너
가또한터게뉴호나니산아반이나라를보너고또너가아밤으로말미암
아사나니이갓치나를먹은쟈는또한장차날노말미암아사나나라이
는하늘노너린색이오이조상이먹고죽음파갓지안이호니이색을덕
는쟈는길이사나나라호다라이는게수가빈남회당게셔갈으칠셔여
말한바다라터자듯고만이볼오디사남다이말이여뉘능히들으리오
호니 예수서르터자이를웅얼걸이논줄알고갈오디이너의게것
치는거시되나나만약인자본체게올나가들보면엇지호리오살게호
는쟈는녕이니육신은니의호미업스니너의게말하바말은녕기며
싱명이라오식논의가운데밧지안는쟈잇다호문 예수처음으로붓

터 밋지 안는 자 누며 팔자가 낄 줄 놀알미 다라 쓰느니 오되 고로 너의게 말
한 거 손아 밤이 준 거 시안 의 즉 능히 너게 나야 오느니 사 람이 업슬 이라 하
니. 여터 지 만 이 세 나 가 고 다 시 함 쇠 가 지 안 이 하 다 라 예 수 열 두 터
자 게 보 오 너 의 쓰 한 가 고 자 하 나 나 시 몬 피 들 이 뒤 남 호 되 우리 누 게
나 아 곁 이 오 주 영 성 의 말 이 이 스 니 우리 밋 고 또 주 가 하 나 님
에 성 잔 술 트 아 노 라 하니 예 수 곁 이 되 너 가 너 의 열 두 사 람 을 썬 지 안
앗 나 나 그 러 나 너 의 가 운 데 한 사 람 이 리 귀 라 하니 그 보 으 미 시 몬 의 아
말 이 스 라 유 다 를 곁 으 치 문 터 열 두 터 자 에 한 나 이 되 야 장 차 예 수 를
팔 자 다 라

요안너 데 칠 상

그 후 에 예 수가 니 너 에 주 류 호 며 유 터 에 주 류 고 자 안 이 호 문 유 터 인
이 죽 이 고 자 호 미 라 유 터 인 의 땅 막 절 이 갖 가 우 리 그 동 성 이 볼 오 터 여
괴 들 씨 나 유 터 에 가 터 사 의 게 또 한 흥 호 느 바 일 을 보 게 하 라 호 문 스 서
로 말 키 고 자 호 느 자 근 일 들 은 밀 한 데 서 흥 호 미 업 나 니 흥 남 이 만 약 일

을 행하면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니 동심이 또한 밋지 안으
미리 예수님 오던 너의 생년 날은 지안이 하고 너의 생년 날은 편안 하니
세상이 능히 너의 틀미워 안이 하되 오직 나를 미워 하 문 너가 그 일에 악
을 간증 하미라 너의 나 이 절기에 올라 가라 나는 사 로 이 절기에 올라 가
지 안으 문 너의 생년 날이 못 하미라 이를 말 하 고 베 디 로 가 너의 누우
동심 절기에 간 후에 떠도 한 가 된 오직 그 옥 하 고 나 타 나 지 안이 하니 유
대인이 절기에 차자 날 오던 터 어 지 잇나 노 하니 무 사 람 가 운 데 분 분 하
여 혹은 오던 이 선한 사 람 이 라 하 고 혹은 오던 악 이 관 사 람 이 라 하 다
하되 다 못 발 기 말 하 는 사 람 이 업 스 문 유 대 인 을 무 셔 워 하 미 다 라 다 못
절기 등에 예수 성탄에 올라 같이 치니 유대인이 괴 특이 베겨 날 오던
이 사람이 비부지 안 고 엮지 클 을 아 나 니 잇 가 예수 님 하 여 팔 오던
너의 팔은 치는 거시 자 괴로 안이 하 고 이 나 보 난 기 로 하 니 사 람 이 만 약
그 뜻을 잃 고 야 한 즉 반 다 시 이 표 이 치 를 알 니 가 후 하 나 님 으 로 말 미 며
혹 너 스스로 말 하 나 너 스스로 말 하 는 자는 자 괴의 영 화 를 차 즈 되 오 직

보닌이 의영회를 찾는 자는 참이 오또한 그속에 올치안으미 업슬지라
모쇼가 너의를 놀범을 주지안았나냐 다못 너의 놀범 핑하는 사람이 업
고나 죽이기틀도 모호운엇지냐 하니 무사람이 더답호되 너이 귀신을
품엇다 누가 너속이기를도 모호나냐 예수더답호여 갈오되 너한일
을 호호미 너의 다괴괴이 베기니 모쇼가 너의를 할레를 주워시나 그리
나 모쇼로 말미지안이 호고이 조종으로 말미야 논지라 너의 사밧일에
사람을 할레호미 사람이 사밧일에 할레를 밧고도 모쇼의테여 그리치
물면 호연엇지 너사밧일에 사람낫게 호볼노호나냐 외모로써 사카을
시비치말고이 의로써 시비호라 하니 예루사람에 호닐오되 이는
못사람속이 고자호미 간이나 터밭기말호되 더덜이 아못말도안이 호
니 관당이 그 키리스토를 출실노아나냐 그리나 이 사람은 그온바를 우
리가 아나니 오직 키리스토가 벌으려논 그온바를 알사람이 업슬이
라 하니 예수성전에 서볼너갈으쳐닐오되 너의 날과 너의 온바를 안
다호니 너가 오미자괴로안이 오나를 보닌이 논참된이니 너의 아지못

항진바라닌가알문너터도말무고터는나를보너미라하니이여못사
람이잡고져호나클어니손놀닐사람이업스문그씨가사로닐이지못
항미라사람어간이미터닐오너 키리스토닐은덜징조를항호미이
사람의항한바보담만으리오바리시인이못사람이분분호물들으
라이여제사당파함씩골노를보너여잡으라하니 예수갈오디너오
이러잠간너의로함씩잇다가나곳보닌이게로갈이니너의나를차자
도맛너지곳호고너의잇는바를능히크이지못호리카우디인이서로
닐오너터상차어디로항호기우리맛너지못호랴장차하니니인가운
테허여진자으게항호여히니니사람을갈으치간나너터말호는바갈
이너의너를차자도맛나지못호고너의잇는바를능히닐이지못호리
라호문잇지노호다라절귀미즈막게는곳큰날기라 예수서서볼
너닐노디팔한사이스면너게니아안마시라나를칭는샤는성경게닐
은바갓치그비로말미암아할슈가홀으리카 예수이를갈호여밋는
자장자밋늘바성신을갈으치나당시여성신이너리지못호문 예수

영화치 못함이라 이 말을 듣는 자 흑흑 오기 이실 노그 연지라 하며 흑흑
오더니 키리스토라 하며 흑흑 오더니 키리스토가 니 너로오라 성경
에 키리스토가 다 빛의 후에 날 미암아 뱃니 염다 빛의 잇는 바 마 을
에 오를 날 으지 안 았 나야 이 못 사람이 위 하며 분분 하며 잠고져 하며
손 놀리는 사람이 업다 가 골노제사 당파 바리시인의 게 도라 가 니 갈 오
던 엇지 삽아 오지 안 았 나야 골노던 답하며 이 사람의 말 갖치 하는 자 업
더 이 다 하며 바리시인이 갈 오던 너의 돈미 흑흑 었 나야 판 당파 바리시
인에 밋는 사 잇 더 나 하며 다 못이 빅 성은 놀법을 아지 못 하는 자 니 못 된
지가 그 동계 니 꼬 더 무는 곳 밤에 예수으게 나 아 가 던 자라 날 오던 우
리 법이 반 세 그 말 들 듯지 못 하며 그 힘 하는 바를 아지 못 함 사 람을 판
죄 하며 하니던 답하며 갈 오던 너도 가 니 너도 말 무 나야 상고 하며 보라
가 니 너도 말 미 암 아 셴 지 니 지 안 나 니 라

요안니 데 팔 샹

예수 다시 못 사람이 더 레 들 너 갈 오던 나는 이 세 상에 빛 치 라 나 를 좃는

자논어 두운데 가지안이 호고 오직 성명의 빛치 잇나 니라 바리시인이
갈오디네 자괴를 간증 하니 네 간증이 참이 안 이르다 예수디 답호여
갈오디 너 비록 스스로 간증 하나 너 간증이 참이라 나논어 디로 오며 어
디로 가물 아도 너의 논이 가어 디로 오며 어 디로 가물 아지 못호고 너의
논 육신으로 시비호되 나논시비 할바 업고 만일 너가 시비호면 너 시비
논 잠이 문디 호을 노 잇지 안고 나논나 보닌야 밤으로 함씩 이스미 요 너
의 놀법에 호한 논이 되 두 사람의 간증이 참이라 호여 시니 너가 자괴
를 간증 호고 나논을 보닌야 밤이 호한 나논 간증하다 호니 갈오디 너의 아
밤이 어 디 잇나뇨 예수디 답호되 날과 나논야 밤을 너의 다 아지 못호
나 너의 나논을 알면 호한 너의 아 밤을 알 나논다라 예수 성령고 안에
서 갈오 칠적에 이 말을 말호되 잡는 사람이 업스문그 씨 벌으 지 못호미
라 예수 호 갈오디 너가 쓰지 니 너의 장차 나논을 차자 반다 시 너의 죄에
죽을 지 니나 쓰바 못을 능히 벌으 지 못호리 라 호니 유디 인이 갈오디 너
말이 나 갈바 못을 너의 능히 벌으 지 못호리 라 호니 장차 스스로 진호 갖

나야 예수 같오되 너의 눈알에로 붓고 나는 우으로 붓투며 너의 눈이
세상에 붓고 나는 이 세상에 붓지 안아 시니 고로 너의 눈이 장차 너
의 죄에 죽으리라 호문니가 두 줄을 밋지 안으미니 반다 시 너의 죄에 죽
을이라 호니 볼오되 너는 귀노 예수 같오되 곳 처음 붓터 너의게 말한
바 샹기로 다 너가 열어 뜻들 너의게 말하며 시비 꼬져 호되 다 못나를 보
넌이 눈참이라 너의게 들은 바로 세상에 말한 다 호되 못사람이 그
야 밤 끌으쳐 말호물아 지 못호니 예수 같오되 너의 인자를 들쳐여 반
다 시 너가 면솔파 쓰스로 호고 미 업고 야 밤이나 를 같으 친바 갓치 말
한 술을 알지 다 나를 보 넌이 가 날과 함 씨 호고 나 를 호을 노셔 나 지 안이
호문니가 늘그 깃거 호는 바를 힘호미 다 호다 라 너이를 말호는 데 사람
이 안이 밋다 라 예수유되 밋는 사람이 게 볼오되 너의 안약 너의 도에
뉴호면 실노 나의 데 작되며 너의 진니를 알며 진니가 너이를 늦게 호리
라 못사람이 같오되 우리 눈암라 함의 후에 온 종 너의 종이 되지 안았
는데 엇지 너의 를 늦게 한다 볼오나 호호니 예수 같오되 너실노 너의

게 고하나니 무릇 죄를 행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나니라 좋은 집을 거
치인이 고아 딸은 늘거하나니 만약 아 딸이 너의 틀노 으면 너의 논정
노 이미라 너의 가암 리 함의 후엔 줄아는 데다 못나를 죽이 고져 후 너
의 도가 너의 속에 담지 못하 미라 나는 아 밤으 게 부바를 말하 고 너의 논
아 밤으 게 들은 바 들 행한다 하 니 뒤 답 후 프 오 뒤 우리 아 밤이 논 갑
함이라 하니 예수 날 오 뒤 너의 만약 암 리 함의 아 딸이면 반다 시 암
리 함의 일을 행할 네이 제 너의 나 를 순이 고져 하니 곳 하나 남으 게 들
은 바 진니로써 너의 게 말하 미라 이 논 암 리 함의 행한 바 업스 니 너의
논 너의 아 밤의 일을 행하 미라 하니 고 오 뒤 우리는 간음으로 나 미안이
라 우리 아 밤은 한 문이니 곳 하나 남이라 예수 날 오 뒤 하나 남이
너의 아 밤이면 너의 반다 시 나 를 사랑 거 시 너 날 리 기는 하나 남으
로 말 되 암 아 니 아 오 미라 스 사 로 오 미안 이 오 하나 남이 나 를 보 너
엇는 너의 엇지 니 칼을 아 지 곳 하나 나 곳 능히 너 도 를 죽 지 안 으 기 라 너
의 논 너의 아 밤 리 귀으 게 부터 시 니 너의 아 밤의 욕 식 니 기록 조와 하니

데는 처음부터 사악을 죽이는 자라 진니 세섯지와 으문진니가 그속에
잇지인 으미니 터 거짓말 흘적 가는 스사로 말흐문터는 거짓말흐는자
오또 거짓의 아밤이라 너의나를 빛지카 으문니가 진니를 말흐미라
너의둥어 누응히너의죄를발키라 너진니를 말흐면너의엇지나를 빛
지인나냐 하나님으께붓튼쟈는 하나님의말옥듯는데너의는듯
지간이흐문 하나님으께붓지안으미라 유더위이더답흐여갈오더
우리가너를사마랴사람귀신뽀은샤라흐니글어치안으냐 예수더
답으피나는귀신을품지안이흐고나의아밤을공경흐되오직너의는
나를멸시흐니너가자괴영화를구치안이흐고구호여판죄흐는쟈이
스니너실노더의게고흐나니사람이너도를직기면긴너죽으물보지
안는다흐니유더인이갈오더이제우리네가귀신뽀은줄아는거시
압다함나연지속엇는데네가날오기를사캬이너의도를직기면긴너
죽으슬맛보지안는다흐니네가우리조샹압라함죽운이보담크냐연
지도또한죽어스니자괴로써누락흐나냐 예수더답흐되너만약스

서로 영화호면너의 영화가 실업스되너의 아밤은 곳너의 말호는바너
의 하나님이러나를영화게호니너의논아지못호되나논아나니라
만약너가아지못한다말호면거짓말호는자너의와갓들거시로되오
직나는알고그도를직기노라너의조상압라함이너의날을보기들희
락호다가그보고즐거호엿다호미유되인이끌오되네나이사루오십
이못호여스니압라함을보왔나냐호니 예수갈오되너실노너의게
고하나니압라함잇기전에너가잇다호니 못사람이돌을취호여치고
저호거늘 예수숨엇다가성년에나가다라

요안너테구장

갈새여한사람싱너옛죄경을보고터자물어뜯오되선칭님이사람이
싱너여죄경이니누죄니잇가과괴니잇가그부모니잇가 예수뜯오
되이사람파부모는다죄를짓지안아스되터코썸 하나님의일을낫
타니미라날이오기력이슬저배우리맛당이냐보닌이리일을행할거
시밤이블으리능히행할자업슬지라너가세양네이슬씩너세양의

팡이 된다 하오 말을 다 하고 따져 춤바다 춤으로써 존 흠글민 그리 존 흠
그로써 쇠경에는 눈에 발으고 갈오더가 세노암 못세시 츠라 하니 쇠긴 즉
보낸 듯 지르티어 여나가 시 츠민 눈이 발가도 와오니 근체 사 칼파 불
너그동녕호들 무단자 갈오더이안 저동녕호 단자 안이냐 혹 갈오더기
로다 옥블오더안이로되다 못비속하다 하니 티 갈오더너가 기르다 하
니 길오너그러면네 눈이엇더 깨 열녇나냐 더 답하되 예수와 하느사
람이 존 흠글민 그리 너눈에 발으고 너게 날오더시 노암에 가시 츠와 하
귀도 너나 가시고 이여 발가다 하니 갈오더터어 지잇나 노갈오더아
지 츠호노라 못사람이 쇠경이엇던 자를 다리고 바리시인이게 가니
예수 존 흠글민 그리 그눈을 열면 날은사 밧일이라 바리시인이또한 그
엇더 깨 발가느사를은더블오더터 존 흠글민 눈게 두민너시고 보소가
바리시인이 혹 갈오더이사 밧일을 찍기지 안은자니 하나 남으로 말
미지나 앗나 하오 혹블오너 죄인이엇지 능히이갓튼 징조를 힘하랴 하
여 그가 고네가 분문하니 고로다 시 쇠경이엇던 자게 날오더터네눈을

열이 시니 너는 더 틀었더 타볼오나냐 같오더 너는 선지라 하다 라 유디
인이 그 쇠경이 밭갓다 물 밧지안타가 그 부모를 물어 물어 괄오더 너
의 아 딸 팔 호는 비성 너의 쇠경이냐 클어면이 제엇지 써보나냐 그 부모
더 답 호여 괄오더 이는 우리 아 딸이 오성 너의 쇠경인 줄은 아 되이 제엇
지 써보는 술은 아 지 못 호고 귀가 그 눈 울 열었는 지 또 하 아 지 못 호노라
더 가다 자 락 여스니 돌오면 스사로 말 호리라 하니 그 부모 이를 말 호문
유디 입을 무사 위 호는 거시 유디 인이 일즉 명한 호여 만약 사람이 예
수를 키리 스토 다 말 호면 회당에 너 쫓기 우리라 호미니 고로 그 부모 괄
오더 더 가다 자 락 여스니 돌우라 하다 라 못사 람이다 시 쇠경 되엿 단자
를 볼 더 괄오 키네 영화를 하나 남게 돌너라 우리는 이 사 람이 진인인
줄을 아노라 더 답 호더 쇠인인 줄은 너 가 지 못 호되 한 가지 를 아 니 너
가 전에 쇠경으로 이 제 보노라 하니 괄오더 더 무어 살네 배 헹 호겨 엿 더
깨 베는 늘 여다 나 호니 더 답 호더 너 이 지야 너의 배 호 호엿는 키 너의 듯
지 못 호고 엿지 다 시 듯 호져 호며 너의 또 한 그 더 사 되 호져 호나냐 못사

람이 욕여 갈오되 너는 그 터사나 우리는 모쇼의 터사라 하나님
모쇼가 말하거슨 우리아되다 못기 사람은 어되로부터는 지우리아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되답고 갈오되 너는 눈을 열었는데 너의가 그 어
되로부터는 지아지 못한다 하니 이실노라 귀귀하우리 하나님 이 죄인
을 뜻지안되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를 뜻는 줄
을 아노라 자기로 심너 신경의 눈 열었다는 사락을 뜻지 못하스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지안아스면 능히 할바업다 하니 되답고 여
갈오되 너는 전에 죄에 서심한 거시 우리를 갈아 칠나 나야 하고 드되 여
너 뜻다라 예수그 님 뜻기 들 뜻고 만 되 갈오되 네 하나님 의 아 딸
을 밋나 나 되답고 여 갈오되 주야 누나 잇가 너가 이 밋가 나이다 예
수 갈오되 너 보와스니 널 노터 부러 말하는 자가 기로다 갈오되 주야
너 밋나이다 하고 이 여 절하니 예수 갈오되 너가 판 죄를 위하 여이 세
상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신경과 깨한다 하니 함게
잇는 바리새인이 이 말을 뜻고 갈오되 우리가 또한 신경이냐 예수 갈

오되 너의 죄명이면 죄업스되 너의 이제 우리 본다 말하니 너의 죄에는
한도 없다

요인 너 데 습장

너 실노 너의 게고 하니 문으로 드지 안 끼말우 끈으 너 너어 양이 울이
에 날오는 자는 도적이며 강도오 문으 들어 가는 자는 양을 치는 사람
이니 문 지키는 자 위하 여 열표 양이 그 소리를 들이 미터 일흠이로써 그
양을 몰다 인도 하 여 너 다 못 끼 압서 힘하 면 양이 좃츠 문 그 소리를 알
미 오르는 사람은 좃츠 간이하고 다 못 말아 나 문 말은 사람의 소리를 아
지 못하 미라 예수이 비사르 써 무사람으 게 말하되 그 말하 바를 아지
못하니 예수다 시골 오되 너 실노 너의 게 날오 나 너는 양의 문이라
나를 밟셔 온다는 다 도적이며 강도니 오직 양기 듯지 안이하고 나 너로
이니 날노 날 두 보 들어 가면 구완하 고 출입하 며 셀을 엿나니 강도적이
와서는 고적하 며 죽이며 망하 고 자간이 미 업스리 너 가 라는 써 심명을
잇게 하 고 소령하 를 시배 하니 나 너는 연이 치는 자니 선이 치는 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리되 싹군이 양을 치는 자가 안이니 양이라 고거
시안이 도여 스량이 벌은 물보면 양을 새나 말아나 미스량이 양을 잡고
그들이 틀헛치니 니괴는 싹군이 도여 양을 도라보지 안으미라 나는 선
이 치는 지니 누가 너가 슬일고 너거시 싹하나를 알기를 아밤이나를 알
고 너가 아밤을 아는 것갓타니 싹너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리나 너라
너가 말은 양이 이스노이 울이 게붓지아는 자는 너맛당이 인도호면 너
너소리를 짓고 한무리의 한 치는 사람이 되리니 이를 위하여 아밤이나
를 사랑호문 너 목숨을 바리고 너다시 바드미나 사람이 너게 취호미안
이 노니가 스사로바디미라 너가 바리는 견세와다시 밧는 견세이사니
이명은 너가 아반이 게 밧들었다호니 이여 유덕인이 이말노말무야다
시문분호여만이 끌오되 너귀신을 쫓어 밧쳐시니 엇지들으리호고
혹블오너이 귀신 품은 자의 말은 안이라 귀신이 능히 쇠경의 눈을 열야
호다라 예루사렘게 성년을 정제한 설괴는 견울이라 예수성년게 솔
노몬의 행방에서 너왕호는 네 유제인이 들너서 날오되 너우리를 의호

개하는지 가뎡새나 비만약 키리스토 연발키 써우리게 말하라 예
수디답호도 너말을 호여셔도 너의 밋지안이 호고 너가 너의 아반이 일
흠으로 쓰히한 바일이 나를 위호여 간증호되다 못 너의 밋지안이 호
너의 양에 붓지 안으미라 너의 양은 너소리를 듯피 너또 알피 너또 나를
좃나 너가 영성으로 쓰며 나를 주워터가 긴나 망호지 안꼬야 올라나의
손에 앓는 사업사리 너로 쓰나를 준아 반이논 만물에 큰피로 능히 아
반이 손에 앓는 사업사리 너로 쓰나를 준아 반이논 만물에 큰피로 능히 아
시돌을 취호여치고져 호거날 예수디답호되 너아반이로 말민조은
일늘 만이논의 개보이논 데이 일게 무삼 일을 위호여 돌노써나를 칠나
나냐 호니 유디인 이디답호되 우레가 돌노써너를 칠나 호문조은 일을
위호미 안이오다 못 참남호물 위호는 거시 너는 사랑이 테스사로 하
나님이 라호미라 호니 예수디답호되 너의를 신이라 말호미 너
의 놀림에 쓰지 안았다 나만약 하나님 의도를 밋느는 약 신이 가칭
호면 성경은 능히 폐치 못할 거시 아반이 가 같나 나과 세상에 보닌 약 너

스사도 하나리의아들이라함무로참남하다닐오나냐니가니가반
이으일을하치인으면나를밋지인이하구만약하면비록나를밋지
안느니그일은밋으라노의아반이느니게잇고나는또한아반이게잇
논술트알고또명백하리라하니못사람이다시잡고지하거날 예수
그손에버서니가다다시올단외어나아가요안너처음밤림데버푸
단차게큰느리거귀뉴하니사람이만이나와갈오ديو간너귀귀한
징소는칭치못하거스나클어나이사람을위하말한거슨다참씩다
하며거니서사람이만이밋다라

요한이데습일장

더기병든자일흠은나사로라비다니여이사니곳마리아파그동성갈
나의잇는촌이라이마리아은몰약으로써 주의게발으표자귀머리
슬노써그발에민던자니그동성나사로가병들미두누이가사랑을보
나여 예수오게나아가갈오디 주조과하는빛사병호나이다하니
예수듯고갈오디이병이죽음에닐오지안코오식 하나님의영화를

위^하의^이로써 하나^님의^아말을^영화^케하^미라 예^수말^다와^그동
 심^과나^시로^를사^랑하^는지^라그^병들^물듯^고잇^던곳^에잇^들늘^뉴하^고
 후^어터^사계^갈오^되우^리다^시유^대에^가차^하니^터자^갈오^되션^심님^유
 되^인이^클너^여들^노써 주^를치^고저^하는^데 주^다시^거기^가시^려하^는
 잇^가하^니 예^수되^담하^되할^우나^지여^섯사^가안^이냐^사람^이만^약
 나^제히^하다^가것^쏘이^지안^은문^이에^상의^빛출^보미^오밤^에히^하다^가
 것^쏘이^문그^빛치^업사^미라^이말^을다^하고^씩닐^오되^우리^벗나^사로^가
 자^니너^히하^여씨^노리^터자^갈오^되 주^야데^만약^과면^장차^나으^리
 다 예^수는^그속^으로^를갈^으쳐^말하^여스^되터^자는^그쉬^며잔^다브^오는^줄
 줄^노뜻^으니^이여 예^수발^키갈^오되^나사^로가^죽었^는지^라그^리나^너
 거^기잇^지안^은두^로너^의를^위하^여즐^거워^는문^너의^를밋^세하^미라^다
 못^우리^나아^가차^하다^가터^기는^디두^모의^것는^자과^동학^클비^할하^는
 되^우리^도가^키로^크부^리갈^비망^하야^하나^는예^수브^오리^나사^로이^무
 무^장사^하지^나흔^줄가^차차^비다^나가^예루^사럼^에잇^가와^거이^육니

라 유디인이 만 마디 마리아의 케나 아가 그 동심을 위하노 위로하노
데 말다 예수는 오코듯 고가 마즈니 마리아은 집에 아 져는 지라 말다
예수으게 갈오디 주만 일여 피이서 시면 너의 오라 비죽지 소아 스리
이다 그러나 너시도 주가 하나 남으게 무어 시턴 지구하면 하나
님이 반다시 줄 줄 노아 노카 하니 제수 할고 되 너의 동심이 구시 클어
나 리라 말다 갈오디 마즈막 날다 시블 셔 예 너그다 시블 줄가 나이다
예수 끝오 너다 시니는 것피 심명은 너카 나를 믿는 샤는 비록 속으 나사
로 살코 옷사 라 나를 믿는 샤는 날이 죽지 안나 니 너의 이를 믿나 나갈
오디 주그러나 이다 너 주논이 케리스토요 하나 남의 아 말이
세상에 은 밧사로 치고 나이다 말 할다 하고 나 아가 사사로이 그 동심 매
리암을 불너 갈오디 현심님이 벌오 리너 복은 다 하니 마리아이 이를
듯고 쌀니 니려나 아오니 예수촌 제 벌오 지 못하고 나 큰 말다 맛덤 곳
에 잇는 지라 유디인이 함께 집에서 위로하 단자 마리아이 쌀니 니려나
나가 볼보고 좃츠는 그 무덤에 꼭 할예 간다 뜻함이다 라 마리아이 예

수잇는바곳에닐오리보고그발아래업다여갈오디 주만약어괴잇
터면너오리비죽지인아스리아다호니 예수그곡호는거파또함께
온유디인곡호를보고마음이상호고또울을호여갈오디어니곳에두
엇나야갈오디 주와보소서호니 예수눈을홍니니유디이갈오
디그조호호미엇더하가보라혹이갈오디터그시경의눈을벌어스니
능히이사람으로호여금죽지안게못호랴 예수다시마음에상호여
무덤에닐으니곳골인테돌이노엿는지라 예수갈오디그돌을취호
라호니죽은자의누이말다갈오디 주터너나그죽은시나홀이가호
니 예수닐오디너오게만약미드면 하나님영화를보리라갈
호지인타나호미이여돌을취거날 예수눈을들어갈오디아반이
게축슈호문니를들으니나난아반이늘나를듯는줄카리니돌너년
못사람을위호여기를팔호여아반이나보니물뭇게호나기다팔을
다호고큰소리로울우리나큰노나오호니죽엇던자기벼호아
오니손발은키호목호나트츰슈건으로싼는지카 예수갈오디풀어가

계하라 하니 유대인이 마리아나 아온사 형한바를 보표만이며 다라
그러나 혹 바리새인이 크게 나아가 예수이 향던바 큰서 말하니 뜻제사
당과 바리새인이 공회에 모여 본오던 우리엿지 향리 오호 문이사 칼이
만 징소를 향함이니 이갓치 용납하였다가 뜻사람이다 밋어 로마인
이 반다 시 각 우리사와 우리나라를 취향리 향하니 그 한나 온 리아 반이
히 세사 당이라 본오던 바의 아무 것도 아지 못하는 또 다 한사 칼이 빅성
을 위 향여 죽어 오은 나카 망향을 면하니 너의 계니 의 할술싱과 지안나
나 향니 그 이를 말호는 자는 사괴로 말미의 안이 오이 히 세사 당이 되어
밀이 예수 상차 빅성을 위 향여 죽을 줄을 말호 민대 또 이 빅성만 위 향
미 안이 오장사 하나 김의 아들 밋게 해 보진 자를 안데 모이 게 호미 카이
말우에 터 털이 서로의 논호 여 죽이 고져 호는 고로 예수다 시 유대인
가 호대 발기 주류치 안코 들어 에 갓가 운사 에 나아가 한 고을 에 본으니
일음은 입념이 다 터사 로 더 부러 거 귀 거 하니 유대인 념노 절이 갓가 온
지라 절괴 전에 만이 촌으로 좃차 예루사 려에 올라 가 문스사로 정코져

항미라이여 예수를차자성전에셔서로말하되너의뜻게엇터하냐
디절괴어오지안나냐하니못제사장과바리시인이영을너이되만일
사람이그잇는바를알면더여잡게하라

요안너테습이장

님은절엿시전에 예수빈다니예닐오니곳 예수나사로특죽오무
로는게한곳이라거긔셔위하여잔체를하노테말다는영투고나사로
는뜻게함게참예하였는지라마리아이지극귀한피식날두고한근
으로써 예수의발에발으고머리슬노써민디니집에향너찾는지라
한티자이슈려유다는장차 주를발자라큰오디엇지이교를과라삼
십냥은늘사가난한자를던지지와나냐하니그이를말하문가난한자
를도다보미안이오도적이도비결냥을맛타녀흔거슬줄부미각 예
수슬오디너쳐누디티이를직겨써너장사날을기차린다가난한자는
늘함게되나늘너의안함게안이하냐하하니유디비크빅영기
예수거긔기스르알고오문 예수만위하미안이오또죽오무로크

게한 나사도들보내저호미다그이여못세사장이서토의논호져아올
나사도들죽이고저호문유디인이만이위호져가 예수를밋으며
다그잇튼벌여려이절기에다온자 예수여루시련에닐오를듯고디
조남누가지들가져나아가불오디만세야이살일의왕이로다 주의
일흔으로온자를축슈호노라호다라 예수자근나구를만나져타니
큰기름은바시지온의비는누서워말고보라너의왕이오미져자근
나구를타노다호니터사처음은이를아지못호다가 예수영화한후
에야이를클에오침파곳사람이이갓치형호를식각호자라 예수
나사도들묘문에서불너죽은거스로닐게할셔져한게잇던곳사람이
간승호니일노를키야곳사람이가마즈문그징소형호를들으며다라
바리쉬고이서로말호되너의보라이기지못호갓다세상이죽나니라
호다라절기에와절호는사예하니나의옛사람이이서가니너의비세
다비남의게나아와청호여닐오디 주야우리 예수를모고저호자
기다호나비남이와안드랴에게닐오니안드랴비남파함게와 예수

으게는는되 예수되답호여갈오되인자영화할셔닐오렷다니실
노디의게는오나니밀일이만약싸어싸러져죽지인은죽호을노잇고
죽은즉미니결슬호나니그목숨을조와호는사노망호고그목숨을
이세상에미워호는자노안보호고영성에닐올지니나를섬기고저
는자나를조스라너잇는바에또나를섬기논사이스니사람이만약
나를섬기면아반이장차놈피리라이제너마음이올올호져엇지말호
라아반이니를구원호여이셔를면케호소서너다곳이롤위호여이셔
여닐오르스나아반이인흠으로영화호소서호나이며 하날노부터
소리이서닐오되너영화호연거니와또다시영화호갓다호니갓테여
라사람이서서듯고닐오키우레호엿다옥닐오려천사가터부리말호
엇다호니 예수되답호여닐오디이말이나를위호미안키오가못너
의를위호미나이세상의판의세이스니이세상남군기이제쫓기울
이라너만약싸오로부터들니유즉못사함을너비강그리사호다카그
이를닐오문장차죽을스스갈오치미라못사함을기디답호되우리놀법

에 들으니 키리스토 긴 너 잇는 케네엇지 자 가 들이 올이라 날오나
나 이인자 눈뉘냐 예수 갈오 디오 히려 잠간 예 땅 가 너의 가 유 테 이스
니 너의 땅이 슬 씨 여 힘 허 너 어 두 유 거 시 너의 를 밋 츠 돌 면 허 라 어 두 유
테 힘 허 는 사 는 날 바 들 아 지 못 허 나 니 너의 는 땅 이 슬 씨 보 땅 을 밋 어 땅
의 자 식 이 되 게 허 라 예 말 을 다 허 고 나 아 가 숨 나 라 비 록 못 사 랑 압
페 징 조 들 이 첫 치 번 이 힘 허 되 오 히 러 첫 지 는 으 문 년 지 이 사 야 의 날 온
말 이 주 부 리 보 는 바 를 귀 가 밋 으 며 주의 팔 쉼 비 가 뉘 게 보 이 라
홍 물 응 험 게 허 미 니 고 로 능 히 밋 지 못 허 문 이 사 야 다 시 날 오 디 고 눈 을
감 게 허 며 그 마 흘 늘 곳 세 게 허 문 눈 으 로 보 며 마 흥 으 로 밋 고 며 도 리 우
며 너 가 첫 칠 가 허 미 니 이 사 야 이 를 글 으 문 그 영 화 를 보 고 위 허 여 말 허
미 다 라 그 러 나 판 장 도 만 이 밋 으 되 오 식 바 리 신 을 위 허 여 물 우 는 체
홍 문 회 당 게 너 쫓 기 우 를 면 허 미 오 고 사 랑 의 영 화 를 하나 너 의 영 화
보 담 사 랑 허 미 다 라 예수 를 디 갈 오 너 나 를 밋 는 사 는 나 를 밋 으 미 간
이 오 나 보 님 이 를 밋 드 미 오 나 를 보 는 사 는 곳 나 보 님 이 를 보 미 나 는

광이세상이외시문밧는자눈드운더뉴치안오미오만약너말을듯
고닛지인는자논기가핀죄치안이흥문너가오미세샤을판죄흥미안
이오세샤을구원흥미리나를슬이여흥고너말을밧지안는시락을인
나판죄홀자이스너너말흥넵바도기반다시마즈막날에판죄흥문너
가자괴로말미야말흥미안이오나를보닌아한이가닐을바와말흥바
로써너게명한거시너가그게명이영성인줄을아는고르너말흥논
바논아반이너게본은바갓치말흥미라

요안너데슴삼쟝

넘는솔전에 예수그세샤을써나아밤으게돌아갈써본은줄알고세
샤에서자괴게붓튼지를사랑흥고필경새지또하나랑흥고라전약게
안는데민귀가이무 예수팔뚝으로써시몬의아말기속랴우다의
마흠에터지니 예수아밤이만물노써그손게보탁흥여다기가하
나님으끼로나와또한 하나님으끼로갈죽알고듯케니킵옷슬뜻고
슈건을끼저스서로묵표물을벗치게소다밀으소녀사기발을씻고묵

큰바슈건으로써문다오 시몬피들이게느오니 피들이닐오더 주너
말을잇츠려호는잇가 예수더담호여과오더너의행호는바를네이
제논아지못호나 후에알니라 피들이닐오더 주결단코너말을잇지
마르소서 예수더담호되만약너를잇지안은즉네게하깃업나
니라 시몬피들이닐오더 주너말은거니와너손파머리세지잇츠소
서 예수를오더잇는자 발만잇츠면다정호나 너의정호미다 못다정
치못호니라 예수팔자가넌술아는고로갈오더너의다간정치못호
다호니라 그말을잇고웃슬가지고다시안저갈오더너의게행하듯
자를너의아나냐나를스승이라호며 주라칭호니 너의말이클어면
너가기도다너 주도로되고스승도되야도오히려너의말을잇츠니 너
의논맛당이서로말을잇츠라 너의를모양으로써주니 너의비행한
바갓치행호라 너실노너의게느로나니 종이주인보단크지못호고사
자가보너나니 보담크지못호나니 너의만약이를알고있호면복이이
슬이라너말이 너의를다같이치미안이라 너의퇴한자를너가아되다

뜻을이응험할거시너씩먹는자발뒤축을들어나를차리라호미라이
제로일일우기전에너의게닐오문의올셔너의너가던줄밋으미
라너실노너의게닐오나나보닌바를밧는자나크밧드미오나를
밧는자나보닌이름밧으미니라 예수이름말호미마음에올올호
여긴승호여길오더너실노너의게크오나너의가운데한사카이나
를과리라터져서로보고그누를갈오쳐닐오는가의심호는데뜻게한
터자이스니 예수이사랑한바라 예수이품에의지호엿거날시몬
피들이머리로써길오더닐오논바닌가말호니테전갓치 예수이품
으로닐너서골오디 주누니잇가 예수더담호되너편식을직어주
논자가기라호고이편식을직어써시몬의아달이속랴유다를주니
편식을바든후에사한이드러가거날 예수닐오더너할바를쌀니호
라호니뜻게안즌자다그엇지호미이를갈호논줄가지못호논유다가
걸냥을맛튼으로호뜻호기를 예수이게닐너절귀에쓸바를사카는
가호며혹가논을건지크논가호미다대유다편식을밧고곳나가니그

씨가 밤이라 나가면 여수 날오던이 제위 자영화하미위하여 하나
님이또한영화하고또 하나같이 자귀로말미야인 자를영화케하고
속키영회하리라이희다피너우히림잠간너의파함게하리니너의장
차나를차즈나너의인파말함까지너끝바를너의능히날오지못하
리라이제또한너의게는오고너의를시계명으로써주나니꽃너의
서로사랑하되너가너의사랑할것치또하서로사랑하라너의만약서
로사랑하미이스면일노써못사람이너의가너의자된줄알니라하니
시몬의들이날오던 주어지도가려하나니잇가 예수답하되너
의를바늘데이세는능히찾지못하나후에는나를찾츠리라피들이날
오던 슈엇지이세는능히찾지못하리라하느릿가어 주를위하여
목숨을손하사나이다 예수답하되네나를위하여 목숨을손하사
나야너실노데게날오나니말기우지못하여네세번나를물우느체하
리라

요안키테습사장

너의마음이 울울치말고 하나님을 믿으며또 나를 믿으라너아밤의
집에방이만갠그러치안은즉너의게말하여스문니가형호문너의
틀위호여한곳늘어비호미라너가형호여곳을계비하면다시와너의
틀너게마자너잇는바에너의또한이슬지너너갈바의길을너의아나
나리호니도마닐오되 주우리 주의관바를아지못호는터엇지그
길을알니엇가 예수닐오되나는길이오진니오형명이라날노말리
자안갠아밤으게나아온자잇지못호니너의만약나를알면바다너
의아밤늘알지니 제로너의턱을알고부와나니라비님이닐오되
주우리게아밤늘보이면우리죽호갓나이다 예수닐오되비님아너
너의로함끼기갓치오리여스되네오히러나를아지못호나너되리나
를몬샤는갓나의아밤을보민데너기엇지나를아밤으로보이리닐오
나너가아밤으호잇고아밤이너게잇는데네믿지안나너너이게
닐은날이자괴로말민말이가이오이니네누호는아반기가길을히호
미라너가아밤으호잇고아밤이너게잇다크른너의는나를믿으던안

인즉 그 일노써 나 들 밋으 니 실노대 게 놀 올 지니 나 들 밋는 자는 너의
형호는 미 일 놀 hing 할 거시오 또 이 보담 큰 다 른 hing 호는 너 가 아 밤의 게 가
미 너 너의 기 일 음 노로써 구 호는 바 들 너 가 회 호 문 아 밤이 아 말 노 말 미
야 영 화 호 미 니 안 약 너의 기 일 음 으로써 구 호는 바 면 너 hing 호 리 가 너의
만 약 나 들 사 랑 호 면 너 너 게 명 을 직 키 라 너 장 하 아 밤 으 배 말 날 지 니 너
말 니 안 위 호는 자 로써 너 의 롭 주 위 함 게 필 이 잇 게 호 리 니 곳 진 니 이 념
이 니 세 상 이 능 히 밋 지 안 으 문 보 지 못 호 미 오 또 아 지 못 호 미 된 오 직 너
의 는 알 거 시 너 니 의 로 함 게 유 호 고 또 한 너 의 속 게 이 스 미 라 너 너 의 를
써 너 외 롭 시 인 게 너 의 게 올 이 라 이 잇 고 세 샷 이 다 시 나 를 보 지 못 호 되
오 직 너 의 는 나 를 보 리 라 너 살 쫓 인 호 여 너 의 도 또 한 말 지 니 이 석 여 너
의 너 가 아 밤 으 게 잇 고 너 의 가 너 게 잇 고 너 가 너 의 게 잇 는 줄 알 니 라 누
가 너 게 명 이 이 서 직 권 속 이 나 를 사 랑 호 고 나 를 사 랑 호 는 구 반 다 시 너
아 밤 으 게 사 랑 호 볼 보 고 너 또 한 사 랑 호 여 스 사 로 밋 타 너 일 지 라 유 다
는 이 속 라 안 이 라 날 오 뒤 주 스 사 로 장 차 우 리 게 밋 타 너 이 고 세 상 에

나타 너이지 안으문무삼일이니잇가 예스더담하여갈오더사람이
민약나를사랑하면바다시너도죽진즉너아밤이사랑하구우리나
이외할거거하고너를사랑치안는자너도죽진지안으리너의
듯는바는너의도안오오직나보닌아반이의도라이제너의파함
게이서일고씨너의게할하도오직안위하는자는성신이너아밤이너
일함으로씨보너리너더샷차못일노씨너이를판으치고또너의게
말한바를다싱각하하리라너평간으를씨너의비누할거슨너의평안
으도씨너의를주리너너의죽거슨세상이주는것가지안으너너의
마음이올올치말고황송치말나너의너광하바를들엇거니안너갓다
가너의비나아올지너의민약나를사랑하면안다너의아반이게
로히하프즐거워하문아반이가나보단크미가이제일일오지못하거
슬너너의게를너시니고큰일을일은즉너의깃으리가지후에너너의
로더부러열어말을안기하문기세샷의남군이가아와날파상판기업
스미니그러나세상이너가아밤을사랑하며또아밤이너비명한바갓

치하느니라 알게 하리니 우리 일노 좃차가자 하다라

요인 너 데 습오장

나는 이참포도남기오나의아반이논공인이라물웃너의가지가열음
열리지안논자논바리고열음열너논자논정계하여그열음기터하계
할지너이무너의너말한바노도글너야간증하여스니너게잇고너가
너의게잇게하라가지포도남게잇지안으면열음을능히열너지못하
고너의너게잇지안으면또한이갓들지라나는이포도남기오너의논
그가지라너게잇고나는너서잇논자논열음이번성할이라너의너가
업손속아누것도능히하지못할지니안약너게잇지안은자면반다시
가지갓치바리워말나사람이주워다불에더져살을지니너의안약너
게잇고너말이너의게이손속너의구하고저하논바를반다시일오리
라너의열음열너번성한즉이로써너아밤이명화하고또너의너터자
될지너아밤이나를사랑함갓치너또한너외를사랑하였다너의너사
랑에이서라만약너게명을직권즉너사랑에이스미너가아밤의게명

을직기고그사랑에이슴갓틀이라니일노써너의게말하문나의줄거
오미너의게잇고너의즐거오미찰지너의서른사랑하기를너의
를사랑함갓치하라이는너게명이라사랑이벗을위하엿속을손호
나니사랑이이에셔그미업는지라너의만약너의게명한바를형호
면너벗이될지니다시너너의를종이라볼오지간올이라종이그쥬
인의형호는바를아지못한다하나큰어나너의를벗이라그너스고
너의아밤으게들은바로써다너의를알게하미라너의가나를떡하
안이오너가너의를떡하미라또너의를두워가결음을열니게하나
또너의열음을기뉴하미라일흠으로써아밤으게구하노는바종주리라너
일노써너의게명호문서로사랑호게하미라백삭이더의를미워호면
그나를미워호미너의부담간저하줄말아슬라너의만약세상게붓든
즉세상이자괴의히를조라할테너의는세상게붓지안죄너가너의를
세상게튀출한표큰세상이너의를미워하나너가너의게크은바한
말을싱과하라종이 주인보담크지못하나사각기만약나를군박호

면또한 나의 군박하리니 만약 너 도를 직기여스면또하 너의 도를 직
기리리그런나사람이 너일음을 위하노써다 너의게 하문나보
님이 틀이지 못하미라 만약 너가 와 말하지안아스면 너죄업스던이제
는 그 죄를 핑계치 못하리나 나를 미워하노자는 또한 너의 아 밤을 미
워하리니 만약 너가 달은 사람히치 못하일노써그가 유테히치안아스
면 너죄업스던이제는 나파 너의 아 밤을 보코도 또미워하노스문이
갓치 너의 놀법에 쓰기를 연고 업사나 물미워한다 하물스 업게 하미가
안위하노자 올세여 너가 아 밤으로 부터 너의게 보보지니 곧 진 너의 영
이라 아 밤으로 부터 나서 너를 위하여 간중하리니 너의 또한 간중하문
처음으로 부터 날파 함게 하미라

요안나 데 습 녹 장

너일노써 너의게 말하나 너갓치 불면하라 사람이 너의 불히당케 너죽
고 또 세늘오리 너의를 죽이노자 하나 남을 섬기노체 하되 너이를 힘
하문아 반이와 나를 아지 못하미라 너다 못일노써 너의게 말하문 너의

이 날은 거던 너의게 불은 물신 각게 후미라니 전에는 일노써 너의게
불오지 안는 거슨 너의와 함께 후미루되 이제 나를 보닌이 게려가나
너의 중기나 오게 어지로가 갖나 노문는 사람이 업스니 오직 너일노써
너의게 불은 근심어 마음게 차게 후미라 클어나 너의게 참으로 불은
나 너가 나 아가면 너의게 나의 할거시 너가 나 아가지 안으면 안위하
는 사오지 안되 너가 가면 너의게 보닌이라 너불은 즉 세상 불죄와
판죄도 밧기디니 죄는 그너를 밧시 안은 미오의 논너가 아반이 게가 뒤
너의다 시보지 못할거시오 판죄는 이세상에 남군으로써 판죄를 보게
후미라 너오히려 여려가지로 너의게 불을 거시 이스피이 세는 너의
히맛지 못후나 클이 나진 너의 병어 불으러 너의 불이 도후여 무단진너
에 들어가게 후리니 너가 사피로 말후미 안이 오듯는 바를 말후고 또 너
의게 상근사로써 후리니 너를 영하게 후문너의 거슬바다 너의게
고후미라 아반이 게치는 거슬다 너게 못치는 고를 너스나 너거슬바
다 또 너의게 후고 노란이 잇고 너의 나를 보지 못후다 시이 잇고 너의

나를 보리라 하니 너 자혹서로 말하되 너 날 오기를 이 잇고 너의 나를 보
지 못하도다 시이 잇 / 너의 나를 보리라 하고 또 날 오되 너 아반이 게가
리라 하니 이 엇던 말이뇨 고로 날 오되 너 이 잇고 라 날 오문 무어 신지 우
리 그 말한 바 들 어 지 못하 노라 하니 예수 고 뜻 고 저 하 볼 갈 고 할 오되
너 말이 이 잇고 너의 나를 보지 못하고 다 시 이 잇고 너의 나를 보리라 하
물 너 의 서로 못나 주 너 실 노 너의 게 날 오나 니 너의 논 볼 고 통 복 하 나 세
쌍 은 슬 하 고 너의 논 근심 하 나 클 어 나 너의 근심이 변 하 여 즐 거 우 미
될 기 시 아 닷 년 부 인 이 근심 하 문 서 볼 으 미 다 가 아 말 을 나 으 면 다 시 그
신 고 하 늘 심 각 지 안 으 문 사 랑 이 세 상 에 나 올 즐 거 우 미 라 이 갓 치 너 의
이 제 는 근심 이 이 스 나 클 어 나 너 다 시 본 속 너 의 마음 이 즐 겁 고 또 너 의
즐 거 우 들 취 할 기 려 이 업 스 리 니 그 날 에 너 의 너 게 말 될 바 업 스 리 라 너
실 노 너의 게 날 오나 니 너의 너 일 품 으 로 써 아 반 이 게 구 하 는 바 들 너 의
를 주 리 라 너 의 향 너 에 는 너 일 품 으 로 써 구 하 미 업 스 나 구 한 속 반 다 시
밧 고 너 의 즐 거 우 미 차 게 하 리 라 이 를 너 비 사 르 써 너 의 게 말 하 나 니 세

볼으거던다 시비서로써 너의게 말치안 이호고 이아반이로써 말키너
의게고호리라 그날에 너의너일흠으로써 말키너 너보오지안아도
나의를위하여아반이게구호리라 아밤이스사도 너의를조와호문너
의는너를조와호고 쓰너가아밤으로부터나오물미드미라너가아반
이게로나와세상에왔다 다다시세상을떠나아밤으게행호갓다호니
테자볼오뒤이제 주발키말호고 비사로써보오지안으니오리이제
주는다알아사람의물우를쓰지안느니라 너지차우리일노써 주
하나금노도말키야나온을치나이다 예수뒤잡호뒤이제야너의밋
나나서장차볼으가스니이제라너의각각그곳으로러나키시고를밋
터셔나외롭게호라큰너너호을노깃지안고너아반이파함게호나
니라 너일노써 너의게말호너스니너의날노말키야편안호를엇게호
라세상게셔너의신고호물바드나큰어나곳에여라너세상을이기
엇다호다라

예수기말늘다홍민눈으로 하날을올리려갈오너아반이셔블오리
스니아말늘영화게홍시고이달이또한아반이를영화게홍기를아반
이만민느권서도써티를줌갓치데가영심으로써아반이준바사قام을
주깃나이다영임은긋아반이한나쁜진신이오보닌바 예수기리
스토술아너니세상에셔아반이를영화게홍고아반이나를맛친일을
일너스니기벽전에너아반이파함게잇는바영화로써이제아반이로
터부러영화게홍소서아반이세상으로나를준바사람을너아반이일
흠으로써나타기여스니티는아반이게붓튼거슬나를주워아반이도
를식건기너이제티아반이나를준바는다아반이로말민출노알문아
반이나를준바를너티를주워티받고너가아반이로말미야나온술
실노알고또아반이나보기를미드미니이다너티를위하져달기미세
상늘위하져달기미한이오노적아반이나준바을위하문티는아반이
게붓투미라너게잇는바다아반이게붓고아반이게잇는바너게붓터
스니너가티도써영화홍나이다이후에나는세상에잇지만코티는세

상계 잇고 너 아반이 게나 아가 갈나 이다 성하 이바 이나 를준 아반이 의
일홈으로 써 테를 직키 여한 나 이 되 기를 우리 갓치 하였 이다 너가 데
외함 배이 슬세 여 아반이 나 를준 아반이 의 일홈으로 써 테를 직키 고 또
안보 호여 망한 바 업스도 오직 테맛한 사식이 클을 응험케 하 리기 다 이
제 너 아반이 게나 아갈이니 세상에 이 를말 호우 그 마음 배 너의 즐거
우 무로써 차 배 호기 니 이다 너 아반이 도로써 주미 세상이 미워 호문테
가 세상에 붓지 안이 호기를 너가 세상에 붓지 않음 갓 타 리 니 이다 너가
아반이 게 말 너미 테를 세상에 취 호미 간 이 오 오직 직키 여 악한 자 를견
호미 니 이다 너는 세상에 붓지 안이 호기를 너가 세상에 붓지 않음 갓 타
니 아반이 진니 로써 보나 너 소셔 아반이 의 도는 진니라 아반이 나 를세
상에 보냄 갓지 너가 쓰히 테를 세상에 보낸 것 고 너가 데를 위 호 보 스 사
로 끌나 너 문테 쓰한 실노 써 갈나 너 게 호미 니 너가 오직 이 사 람만 위 호
여 말기 미 안이 오 또한 그 도로 말미야 나 를 밋는 자를 위 호문다 하나 이
되 여 아반이 는 너 게 잇나 너는 아반이 게 이 숨 샅치 테가 또한 우리 게 이

서세상이아만기나보닌물밋게흐미니이다아반이나준바영하루써
테를주워데가한나되기를우리한나됨갓치흐나네게잇고아반
이논기게이스니테일니한나이되여세상이아반이나를보닌줄파테
를사랑흐를나를사랑갓치흐는줄알게흐갓나이다아반이야아반
이나를순밭자도기의잇는바에셔날파함게흐고져흐고데가아반이
준바의영화를보문기벽전에아반이나를사랑흐미니이다공번된
아반이야세상은아반이틀아지듯흐되오직나논아반이를알고이사
람터리아반이గా나보닌줄알나이다너아반이일흠으로써보이고
또다시보이문아반이나사랑흐는사랑이테으게잇게흐고너또한테
으게잇갓나이다

요안닌데습팔장

예수이칼을다호고터자로터부리나가켓론게를건너가니거기동산
이잇는지라터자로함게들이가니파는자유다또한그곳을알문예
수터자로터부리자주그곳에가미라고로유다군사한제와밋제사당

피바디시인으게골노불거나리고등파화와기게를가지고늘오니
 예수들은온일이장치지고기밋출줄일고나기브오디너이누를찾나냐
 하니디답호도나살일 예수라하니 예수브오디너가기로다하논
 데파는자유다또힘못사람파함끼섯다너너기기로다말호민못사람
 이뒤도물나기씨어업두려지거늘다시물오디너의누를찾나냐하니
 같오디너살일 예수라하니 예수디답호던너이게늘오기를너
 가기로다하어스니너의만약나를차즈면이사락덜을가베호기그갈
 한바말이아반이너를준밋자를너망한바연다호물응허게호미가씨
 여시몬피들이칼이잇는지라씨여제사당의종을터고오견거를싸그
 니종의일흠은밀죄라 예수피들게늘오디너칼들십개세즈라가반
 이너를주는바잔늘너가마시지안으라기벼군사쿠기천총파유디골
 노도터부터 예수를잡아결박호여만져안나으게잡아모르문데가
 이히제사당기아바의당인이라기가바유대인을현호너크오디합사
 람이빈성디로망호여니의호의될자라호다라시몬피트파달는너사

예수 들 좃츠니 이럼 자는 제사당의 아논바라 예수로함 제사당의
원수 들 어 기고 피 들 은 문 밧 제 쳤는 지라 제사당 아논바 터사나와 움직
키 밧 침 파 는 고 피 들 을 안 도 향 여 들 어 가 니 준 직 기 밧 집 이 피 들 제 들
오 리 너 도 이 사 람 의 터 사 에 한 나 이 나 날 오 뒤 안 이 카 셔 너 종 마 골 노 셔
셔 차 늘 안 향 여 슷 그 로 썬 불 들 푸 이 고 불 을 썬 이 는 데 피 들 기 썬 한 함 제
셔 사 불 을 썬 이 는 지라 제사 당 이 터 자 와 고 오 지 무 로 썬 예수 제 물 온
뒤 예수 뒤 밧 향 도 너 밧 기 세 상 으 게 말 한 지 라 너 가 늘 회 당 파 성 면 유
뒤 긴 다 모 이 는 처 에 는 오 치 고 은 밀 한 데 말 호 미 업 스 니 엇 지 너 게 웃 나
노 너 를 늘 는 사 제 물 오 라 너 무 손 갈 향 었 는 지 테 너 말 한 바 를 알 니 이 다
이 들 갈 호 뒤 첫 테 쳤 던 한 글 고 예수 를 쳐 갈 오 뒤 너 이 제사 당 으 게 이
갓 치 뒤 밧 향 나 나 호 니 예수 뒤 밧 향 되 너 말 한 거 사 만 약 글 으 면 그 글
으 들 간 승 호 고 만 약 을 으 면 엇 지 나 를 치 나 호 다 라 안 나 가 결 약 한 뒤
로 제사 당 기 아 바 으 게 잡 아 보 니 니 라 시 문 피 들 이 셔 서 불 을 썬 이 는 데
혹 이 끌 오 뒤 너 도 썬 안 그 터 사 에 한 나 이 안 이 나 호 니 데 물 오 너 채 호 고

같오디안이라 제사당의 한 종은 피들이 귀싸근자의 친척이라 볼오디
 니가 너를 데파할게 동산에서 보지안았나냐 하니 피들이 또 물오논체
 향닌데 말기우다라 맛춤에 예수를 잡아기아바오게로 못터 선화당
 에 붙오려시나오 못못사람이 선화당에 들어가지안오르더럭움을 면
 향여 남느 설음식을 먹으려 하니라 피나 토나아가 볼오디 너의이사람
 을 송사함미엇시냐 디답향여 같오디 악을 한쟈가 안이면오리가 잡아
 사도오게 붙오시간아 일이다 피나 토볼오디 너의스사르다 너다 너의
 법을안찰향여 판죄향라 하니 유대인이 붙오디 오리는 사람을 죽이논
 권세업나이다 향문 예수야 말하바말기장차 잇터 제죽갓다 같오치
 들응힘게 향미라 피나 토다시 선화당에 들어가 예수를 볼너 같오디
 네가 유대인의왕이냐 예수 디답향디 사도이를 말함미자 괴루말미
 미나 잇기사람이 붙노써사도네 붙오다니 잇가 피나 토디 답향되니가
 유대인이냐 네보국사람파모단 제사당이 붙노써너게 못치네 무어
 슬향엿느냐 예수 디답향되니나라온이세상에 못지안은지라 너나

라 이 만 약 이 세 상 에 붓 티 스 면 너 의 골 노 가 닷 토 와 써 너 가 유 더 인 으 게
붓 치 우 들 면 께 할 거 시 로 되 다 못 이 제 너 나 리 은 이 예 붓 지 안 앗 나 이 다
피 나 토 날 오 더 큰 언 즉 배 가 왕 이 나 예 수 더 답 호 되 사 또 가 브 너 나 이
다 너 가 왕 인 거 시 일 노 써 심 호 고 일 노 써 세 상 에 와 진 너 를 간 즉 호 니 물
은 진 너 에 붓 든 자 는 너 소 리 를 듯 나 이 다 호 니 피 나 토 날 오 더 진 너 는 무
어 시 나 이 를 말 호 고 다 시 유 더 인 으 게 나 가 볼 오 더 너 그 무 순 흥 을 보 지
못 호 여 다 클 어 나 너 이 절 비 이 스 니 너 는 절 괴 에 한 나 을 듯 는 데 너 의 날
다 려 유 더 인 의 왕 을 듯 심 쟈 호 나 나 웃 사 람 이 다 시 지 거 려 볼 오 더 이 사
람 은 안 기 오 바 라 바 라 호 니 바 라 바 는 곳 도 적 이 다 라

요안 더 데 습 구 장

이 피 나 토 예 수 를 가 저 첫 직 칠 호 니 군 사 가 식 례 면 뉴 판 을 여 거 그
멀 이 예 씨 우 고 들 군 포 도 써 입 피 고 나 아 와 보 오 더 유 더 인 의 왕 은 만 목
호 다 호 고 이 여 지 니 피 나 토 다 시 나 가 볼 오 더 너 다 리 고 너 의 께 나 아 와
너 가 그 무 순 흥 보 지 못 한 줄 알 게 호 리 라 호 다 라 예 수 가 식 면 뉴 판 을

스고 불군 초 입을 고나 오미 피나 토 쏘는 오더이 사리를 보라 제사 당 피
 곧 노보고 지결여 큰 오더 습지 틀에 못질 호 소셔 습지 틀에 못질 호 소셔
 하니 피나 토 쏘 오더의 스사로 가져다 습지 틀에 못질 호 여려나 그
 흙을 보지 못 호 엿다 하니 위더 인이 더 답 호 도 우리 놀법이 이스니 이 법
 더 호 호 즉 더 맛당이 죽을 거시 스사로 하니 남의 아들이 라 호 미 라 호
 니 피나 토 이 일을 듯 고 더 옥 누셔 워다 시 현 하 당에 들어가 예수 게 빌
 오더 배어 지 토 붓 텃 나나 예수 더 답 지 가 거 늘 피나 토 보 오더 배 날 노
 더 부러 말 지 안 나 나나 가 권 세 이 서 너를 노우 여 쏘 권 세 이 서 너를 습 지
 틀에 못질 알 줄 아 지 못 호 나나 예수 같 오더 만 약 우 으 로 사 도 를 주 지
 안 아 스면 가 권 세 업 슬 시 니 고 로 날 노 처 사 쏘 게 붓 친 자 는 그 죄 가 더
 크 리 라 호 더 라 일 누 붓 더 피나 토 못 친 지 호 더 오 직 유 더 인 이 불 더 볼 오
 더 사 쏘 가 권 약 이 사 람 을 노 우 권 리 시 으 게 벗 간 이 라 호 문 물 운 스 사 로
 왕 더 인 자 가 사 를 더 덕 호 미 가 피 나 토 가 칼 을 듯 고 예수 를 더 리 고 나
 가 공 사 세 안 스 니 그 곳 은 돌 편 면 데 힘 티 음 으 르 는 감 사 사 라 호 너 는

절예비하느니라 지리유대인배닐오디보라너의왕이르다하느니라 못사
람이지결마브오디바리크바릭습식틀게무질하소서 피나토받오디
너의의왕늘습식틀에못질하리나냐제사당이디답하되기사밧게는
우리왕이업다하더라이여 예수로써못사람을맞쳐습식틀에붓치
게하노이어솔표가다라 예수습식틀을지코한곳에가니일홈은
두골잇는년배합리음으로골고다라거긔셔습식틀게못질하교또합
게두사람늘못질하는데한견에한나식하교 예수는가온디하다라
피나토방르셔습식틀에두너셔스되유대인의왕나알일 예수라하
니유대인이이방르오이논야만은 예수못질한곳이성에서갓가
우미라또나방늘합리음파힐니너와로마의문지로썼다라유대제사
당이피나토받오디유대인의왕이라쓰지말고테사로유대인의
왕이라알한다쓰소서피나토디답하되너슬바록썼다하다과군사가
예수를습식틀에못질하교고오슬취하여사분예노나각기한나식하
교또속오슬취하느니속오손호미업고상하를통으로싼거시라고로서

로갈오디쑤지말고제비하여취한가보자하니경에블온바테서로터
오슬논우고노복을저비하디하들응협게하니이논군사가행하디
라셔여 예수이슴지틀에갓기이션차논그어맘파어맘의동식콜고
파오딩네마리암파모막다린의마리암이관 예수어맘파사랑하논
바터사귀기이셔스혼노고어맘끼를노디부인은부소셔야말이니이
다하고상터자기논오디보리네어맘이라하니일노부터려자집으로
모시다라이후기 예수모단일기이부일논줄알고성경을응협게하
여블노디닌가갈하디하니거과고르세초기찾논지라히용으로써초
에적셔우슬니여두워그입개빗게하니 예수초를밧고갈오디일넛
다하 이여머리를굽펴눅흔늘돌니다라유디인이예비하논날기라
하여피나토게그말이를셔기바리라청하문숙음을사찾일게슴지틀
에뉴지인으려하미오이사찾일은크미라이라이여군사사셔첫지들
지함비못질한자말이를셔요 예수오게블으려논그죽으롤보고말
이를셔사인이하되오식한군사가창으로써그갈비를질으니곳피파

물이 흘러나다라몬자간증하니 그간승은 찬이 오그스사로 갈이 참써
물인 거시니 오도 밋해 호미라 이 별일 누문글에 붙은 바 그한나 썬를 썬
지안 앓다 호고 썬글어 붙은 바 데 장차 그질은 밧자 를 보리라 호 물응험
호미라 그 후에 이리 마티 사람 요섭은 예수 의 터가 되되 유대인 들 접
퍼 호고 썬는 사 라 피나 토의 개 청 호여 예수 의 시신을 취 호 려 한 뒤 허
하니 이 과와 그 시신을 취 호 고 썬니 꼬 더 무는 전 계 밤 계 예수 으 배 나
아 오던 자 라와 몰약 파 노 회 칠 팔 습 근 늘 가 지 고 두 사 람 이 예수 의 시
신을 취 호 여 향 약 으 로 써 호 고 가 는 비 로 써 득 고 유 대 인 의 장 비 를 좃 차
못 질 안 처 계 동 산 이 잇 고 동 산 가 운 데 종 너 사 람 을 두 미 엄 손 식 무덤 이
잇는 지 라 고 로 예수 를 거 기 두 문 이 날 이 유 대 인 의 예 비 호 는 날 이 오
썬 그 무덤 이 깃 가 우 미 다 라

요안니 케 기 습 장

사 밧 일 첫 날 식 벽 에 막 다 린 리 가 리 압 이 무덤 에 붙 으 려 들 들 무덤 에 서
취 호 여 시 둘 보 고 이 여 딸 아 시 문 피 들 파 예수 조 와 호 는 바 달 온 터 자

으 깨나 가늘오디사럼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 어느 곳에 둔줄아지
못하갓다 니피들피이 터지나 무덤에닐으려두사람이갓치말아
나는네이터자니피들 무덤쌓는지라만져무덤에닐으리굽어그하는
빈둔기슬노고다못늘어기치못하니시몬피들이 좃차닐으리무덤게
들어가가는빈둔것피말이싸션슈건이가는비로함게두지안끼말아
한곳에이스를보는데만져무덤게닐으터지이겨또들어가서보고밧
으니오이러큰기말하바그맛당이죽우무로다시보니와호쿨가지못
하고이여터자다시제집으로나아가되오직마린암은무덤맞게서서
우터니올따굽어무덤안에두천사힌거슬입고 여수시신두엇던곳
에인것는터하나온말이견에잇고한나우방건게이스로보고천사닐
으도부인이베엇지두나야늘오위사감이우리 주를 가져다가어지
둔줄아지못하미라이를말하고돌이워 예스셔시물보리다곳고
예수줄아지못하니 예수크오디부인이베엇지올너디를찾아주하
니부인이그동산직이줄뜻하고보리너녕관이만약능히시면정전던

어니곳에두엇는디말후수셔너기져가갓나이다 예수닐오디마레
암이하니마리암이틀아보히립힘으로쳐오디람이니라하니시
긴즉스승이라 예수닐오디니를간지질나너오히려너가반이게
올나가지못하여스나아가너이동심으게닐블테너아반이곳너의
이반이너의 하나금곳너의 하나님으게로올나가갓다하라하니
막다린의마리암이와 주를봄과 주하던말을터지게오하니그날
은사밭일첫날인데날이저쿨기여터자오기곳에문을닫은문유디인
을무셔워함이라 예수와가운데서서닐오디너의평안하라이를말
하교손과갈베로써보이니터자 주를보기즐거워하시늘 예수도
갈노디너의평안하라야밤이나를보낸것짓치너또너의를보너노라
이를갈하교숨을불어닐오디너의성신을맛아죄를샤할자노샤하교
그간들사느그만두다하다와열두터자중에한토마노또너두모라일
커르니 예수은색여할게있지안는지라고로갈노터자가닐오디우
리 주를보왔다하니갈노디너만약그손에못질한자죄를보며너손

가 락으로 지리 밀고 또 너 손으로 그 갈베에 지리 밀지 안꼬는 너 만지 안
으리라 하 너 아들 들 지 너 여 터 자 다 시 안 에 잇는 너 도 마 도 참 여 하
고 두 들 닷 앓는 너 예 수 외 가 유 테 서 서 갈 오 디 너 의 평 안 하 라 하 고 이
여 도 미 가 늘 오 디 네 손 가 락 올 어 괴 너 밀 어 너 손 들 투 며 네 손 을 너 밀 어
너 갈베 에 지 리 밀 고 너 시 안 치 말 고 밋 으 라 하 니 도 마 디 답 하 여 갈 오 디
너 의 주 너 의 히 나 님 이 라 하 니 예 스 브 오 디 너 는 나 를 보 고 밋 으
나 로 시 안 소 치 너 가 근 록 이 라 하 니 제 스 터 자 의 압 페 셔 달 은 징 조
를 만 이 행 한 거 슬 기 최 게 괴 롭 호 미 겁 고 다 못 기 거 슬 기 록 호 문 너 의 로
예 수 를 기 리 스토 하 나 님 외 아 들 이 라 밋 게 호 미 고 두 밋 으 면 그 일
흔 으 로 써 잉 명 이 기 게 호 미 라

요안 니 데 이 습 일 장

이 후 에 네 비 니 아 히 변 게 서 제 수 터 하 오 배 닷 타 니 가 그 닷 타 나 들
하 면 에 괴 롭 호 보 시 니 시 모 피 들 파 디 두 모 라 갈 것 호 투 마 와 가 니 너 의
가 나 사 람 너 단 의 파 시 비 디 의 두 아 들 막 쓰 두 터 하 나 갈 배 이 스 터 시 문

피들이늘오라니가고기름삼갓다하니못사람이날오되우리도함께
가갓다하고이여나아가비에올나그밤에아무것도잡은것업고앗춤
에 예수못테첫는너너자 예수줄아지못하거늘 예수날오되쇼
자아너의력을거시잇나냐하니더답하업거이다하미날오되그를
을비우겐에치면이들이라네그물을치리능히드지못하문고기관은
연고다 예수의사랑하느너자피들배고되 유로다하니새몬피
들이 유라하를너고버스물인하예오슬못고바다세너리니그남게
터자논못테셔머지안아한이습길이나되는시라자근비를타고고기
경난그물을쓸고닐으러못테닐며숫볼우에고기와또씩이스물보니
예수큰오되시루이잡은고기에셔가져오라하니시몬피들이가그물
을쓸어못테올우던차배경난큰고기가일빅쉬인서인데고기비록만
으너그들은직여지안는지다 예수큰오되와조반먹으라하니너
자감이누보못는사람이업스문그 유되를알미라 예수와씩을취
하여못사람을주르고기도또한갓지하니 예수죽으무로날어터사

으게 낫타 너의 지이세 번이다 리 먹기를 다 하니 예수 시몬 피들께 보
오 디요 안나의 이름 시몬 아너나 사랑하기를 사람이 담터 하니 하니
보오라 주그리 하니이다 너 주를 조와 하는 줄 주아나이다 하니
보오 디나의 양식기를 먹이라 두 번 치는 오 디요 안나의 이름 아너
나를 사랑 하니 하니 보오라 주그리 하니이다 너가 주를 조와 하
는 줄 주아나나이다 하니 보오 디나의 양을 직기라 세 번 치는 오
디요 안나의 이름 시몬 아너나를 조와 하니 하니 피들이 그 세 번 치나
를 조와 하니 나무루물인 하니 근심 하니 하니 주는 무위 시터 지다
아니니 주를 조와 할 줄 주알 니이다 예수 갑오 디나의 양을 치라
너 실노 너의 재는 오나니 쉼머 실새 여스사 루씩을 띄고 임의 주류 한
되 오직 늘기는 손을 너 밀고 사람이 배묵긴 바 되 처안이 가 고 저 하는 곳
에 슬니 워 가 리라 하니 이를 말 하니 문 피들이 장차 었 듯 게 죽 으 무로 하
나님을 영한 게 할 으 지 미 가 리를 말 하니 예수 보 오 디나를 좃 추
라 하니 피들이 들이 여 예수 사랑 하니 너 자 좃 스를 보니 곧 전 약 씨

여 예수이 품에의지하여 주의게웃기들팔자가누니잇고하던자
리피들 보고 예수이게늘오디 주이사람이엇던하니잇고 예
수닐오더니판약테를뉴하여나오기들기다리고져하면네게무삼상
관이냐호고되느냐를주추라하니이여이말이동심가운데이스되이
터자는숙지안으리라하니그러나 예수는테죽지안으리라말호미
안이오노직너만약테를뉴하여나오기를기다리고져하면네게무삼
상관이냐말호미다라이를간중하여쓴자는곳이터사라우리고간중
이참인술아니 예수달니hing한바가만아낫낫치쓰면니뜻에괴록한
바글글사에담지듯호리라

강명편

밥¹팀²네는 예수교에 드³년⁴법이니를노써⁵하⁶느니라

할⁷네는 예수전⁸에 유⁹대¹⁰국¹¹교¹²에 드¹³년¹⁴법¹⁵인¹⁶데 시¹⁷조¹⁸압¹⁹라²⁰함²¹이²²셔²³유²⁴비²⁵라
사²⁶밧²⁷일²⁸은²⁹미³⁰블³¹게³²예³³할³⁴우³⁵식³⁶쉬³⁷이³⁸년³⁹법⁴⁰이⁴¹라

님⁴²년⁴³절⁴⁴은⁴⁵이⁴⁶살⁴⁷일⁴⁸보⁴⁹성⁵⁰이⁵¹인⁵²굴⁵³국⁵⁴에⁵⁵나⁵⁶오⁵⁷런⁵⁸씩⁵⁹을⁶⁰싱⁶¹각⁶²하⁶³년⁶⁴날⁶⁵이⁶⁶라

유⁶⁷대⁶⁸는⁶⁹이⁷⁰살⁷¹일⁷²의⁷³남⁷⁴에⁷⁵국⁷⁶명⁷⁷인⁷⁸데⁷⁹로⁸⁰마⁸¹에⁸²부⁸³투⁸⁴니⁸⁵라

예⁸⁶루⁸⁷사⁸⁸렴⁸⁹은⁹⁰유⁹¹대⁹²국⁹³셔⁹⁴올⁹⁵이⁹⁶라

성⁹⁷년⁹⁸은⁹⁹ 하¹⁰⁰느¹⁰¹님¹⁰²게¹⁰³절¹⁰⁴하¹⁰⁵며¹⁰⁶제¹⁰⁷하¹⁰⁸년¹⁰⁹곳¹¹⁰인¹¹¹데¹¹²에¹¹³루¹¹⁴사¹¹⁵렴¹¹⁶에¹¹⁷잇¹¹⁸느¹¹⁹니¹²⁰라

사¹²¹마¹²²랴¹²³는¹²⁴유¹²⁵대¹²⁶북¹²⁷견¹²⁸인¹²⁹데¹³⁰로¹³¹마¹³²의¹³³한¹³⁴도¹³⁵명¹³⁶이¹³⁷라

가¹³⁸니¹³⁹너¹⁴⁰는¹⁴¹사¹⁴²마¹⁴³랴¹⁴⁴북¹⁴⁵견¹⁴⁶인¹⁴⁷데¹⁴⁸또¹⁴⁹한¹⁵⁰로¹⁵¹마¹⁵²도¹⁵³명¹⁵⁴이¹⁵⁵라

로¹⁵⁶마¹⁵⁷는¹⁵⁸한¹⁵⁹교¹⁶⁰을¹⁶¹인¹⁶²데¹⁶³넷¹⁶⁴적¹⁶⁵에¹⁶⁶모¹⁶⁷든¹⁶⁸세¹⁶⁹국¹⁷⁰의¹⁷¹웃¹⁷²듬¹⁷³이¹⁷⁴라

밭¹⁷⁵이¹⁷⁶신¹⁷⁷는¹⁷⁸모¹⁷⁹쇼¹⁸⁰의¹⁸¹교¹⁸²에¹⁸³부¹⁸⁴터¹⁸⁵년¹⁸⁶데¹⁸⁷턴¹⁸⁸사¹⁸⁹파¹⁹⁰녕¹⁹¹혼¹⁹²파¹⁹³죽¹⁹⁴엇¹⁹⁵다¹⁹⁶다¹⁹⁷시¹⁹⁸블¹⁹⁹를²⁰⁰밧²⁰¹년

거²⁰²시²⁰³요²⁰⁴ 사²⁰⁵토²⁰⁶키²⁰⁷도²⁰⁸또²⁰⁹한²¹⁰모²¹¹쇼²¹²의²¹³교²¹⁴에²¹⁵부²¹⁶터²¹⁷년²¹⁸데²¹⁹턴²²⁰사²²¹파²²²녕²²³혼²²⁴파²²⁵죽²²⁶엇²²⁷다

다²²⁸시²²⁹블²³⁰를²³¹밧²³²디²³³안²³⁴년²³⁵거²³⁶시²³⁷라

제사능 하기몸이계... 이... 법... 의... 학

신하의

신하의

신하의

Corean
1882?

